韓國의 口訣* **

鄭 在 永***

요 약

韓半島에서는 오래 전부터 古代 東아시아의 公用文語인 漢文의 사용은 물론, 漢字를 이용하여 韓國語를 表記하는 노력도 있었다. 韓國의 借字表記法은 固有名詞 表記法에서 출발하여, 漢文을 自國語로 解釋하고 나아가 漢字를 이용하여 自國語의 文章을 表現하는 수단으로 발전한 것이다. 이것은 다른 文字를 이용하여 自國語를 표현하거나 다른 나라 말을 자국의 文字를 가지고 표현하려고 한 많은 나라들에서 나타나는 普遍的인 현상이다. 文章 表現의 初期 段階에서는 漢文의 語順과 韓國語의 語順이 다른 점을 인식하고 漢字를 韓國語의 語順으로 바꾸는 것만으로 우리말을 표현하는 방식을 채택하게 되고, 점차 助詞나 語尾까지도 表記에 반영하여 吐를 記入하는 단계로까지 발전하게 된다. 韓國의 口訣은 漢文을 우리

* 이 연구는 日本 文部科學省의 科學研究費 · 基盤研究B(2) 16320058「國際的視点から見た日本語 · 朝鮮語における漢文訓讀に關する實証的研究(研究責任者:富山大學 小助川貞次 教授)」의 지원에 의한 것이다.

** 이 글은 2004년 9월 2일부터 3일까지 日本 北海道大學에서 개최한 국제학술대회(日本學 · 敦煌學 · 漢文訓讀の新展開)에서 발표한 논문을 일부 수정한 것이다. 이 논문 중에서 사진과 참고문헌 등을 제외한 내용은 일본어로 번역되어 汲古書院(2005, 5, 10)에서 간행한『日本學 · 敦煌學 · 漢文訓讀の新展開』에 실려 있다.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말로 飜譯하거나 解釋하면서 읽는 방식으로, 韓國의 漢文 讀法 방법으로 개발된 것이다. 韓國의 口訣은 新羅 義湘(625年-702年) 時代부터 발달된 것으로 보인다. 口訣은 符號口訣과 釋讀口訣, 音讀口訣 등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 이해하는 것이 편리하다. 물론 符號口訣은 釋讀口訣이나 音讀口訣과는 그 分類 基準이 같지는 않다. 그러나 口訣文字를 사용한 釋讀口訣이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前부터 漢文을 訓讀할 때 사용되는 등, 漢文讀法史에서 중요한 意味를 가지기 때문이다. 또, 點吐나 符號를 사용하는 後代의 符號口訣 중에는 音讀口訣的인 성격을 띠는 자료도 있다. 이 글에서는 韓國에서의 口訣의 發生과 口訣의 種類 등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검토한 다음, 符號口訣과 釋讀口訣, 音讀口訣 등으로 순서로 各各의 性格과 그 특징도 밝혔다. 그리고 口訣文字의 文字論的인 意義와 성격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口訣文에 사용되는 口訣文字는 借字表記의 전통에 의거하여 만들어진 새로운 문자이다. 즉, 漢字의 略體字나 필획이 단순한 草書體 등에 의거하여 만든 우리의 독창적인 음절문자이다. 口訣文字는 우리가 많이 사용해 왔던 漢字에서 특히, 借字表記에서 많이 써 왔던 글자를 바탕으로 하여 만든 문자로, 音節文字의 성격을 띤다. 口訣文字는 기본적으로 모두 다 音假字이거나 訓假字이다. 한국의 借字表記法에서 독창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末音添記法은 다른 漢字文化圈에서 발생한 음절이나 單位音을 표시하는 방법과도 다른 것인데, 釋讀口訣이나 符號口訣에서도 末音添記法을 쓰고 있다. 日本의 假名도 口訣文字와 같은 범주에 속하는 문자이다. 실제로 한국의 口訣文字와 일본의 假名은 여러 면에서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 文字發達史에서 구체적인 관련을 맺고 있다. 口訣文字와 假名은 文語인 漢文을 各自의 言語로 解釋하고 飜譯하는 과정에서 漸進的으로 발생하여 발전한 것이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 兩國은 漢字를 借用하여 自國語를 표기한 借字表記法에서도 공통적인 발전 단계를 보인다.

* 핵심어: 口訣, 釋讀口訣, 音讀口訣, 符號口訣, 口訣文字, 點吐, 符號, 借字表記法, 假名

1. 序言

우리 민족은 오래 전부터 漢字를 이해하고 사용했을 뿐 아니라, 古代 東아시아의 公用文語인 漢文은 물론, 漢字를 이용하여 韓國語를 表記하는 노력도 古代부터 있었다. 이것이 바로 漢字를 이용하여 韓國語를 表記한 借字表記法이다. 借字表記 體系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論議된 바 있다. 이것을 정리하여 分類해 보면 다음과 같다.

語彙表記　固有名詞表記와 一般語彙表記(借名表記 포함)
文章表記　鄕札(鄕歌)
　　吏讀(實用文, 公式文)
　　口訣 ┬ 符號口訣 ┬ 釋讀口訣
　　　　└ 文字口訣 ┴ 音讀口訣
　　　　　　　　　 ┬ 釋讀口訣
　　　　　　　　　 └ 音讀口訣

韓國의 借字表記法은 固有名詞 表記法에서 출발하여, 漢文을 自國語로 解釋하고 나아가 漢字를 이용하여 自國語의 文章을 表現하는 수단으로 발전한 것이다. 이것은 다른 文字를 이용하여 自國語를 표현하거나 다른 나라 말을 자국의 文字를 가지고 표현하려고 한 많은 나라들에서 나타나는 普遍的인 현상이다. 文章 表現의 初期 段階에서는 漢文의 語順과 韓國語의 語順이 다른 점을 인식하고 漢字를 韓國語의 語順으로 바꾸는 것만으로 우리말을 표현하는 방식을 채택하게 되고, 점차 助詞나 語尾까지도 表記에 반영하여 吐를 記入하는 段階로까지 발전하게 된다. 韓國의 口訣은 漢文을 우리말로 飜譯하거나 解釋하면서 읽는 방식으로, 韓國의 漢文 讀法 방법으로 개발된 것이다. 韓國의

口訣은 新羅 義湘(625年-702年) 時代부터 발달된 것으로 보인다.

이 글에서는 韓國에서의 口訣의 發生과 口訣의 種類 등을 먼저 살펴 본 다음, 符號口訣과 釋讀口訣, 音讀口訣 등의 순서로 各各의 性格과 특징을 살필 것이다. 그리고 口訣文字의 文字論的인 意義와 성격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다.

2. 口訣의 發生과 口訣의 種類

2.1. 口訣의 發生

韓國에서 어떤 種類의 口訣이 언제부터 本格的으로 쓰이기 시작하였는지는 最近에 韓日文字交流史에 새로운 主張이 提起되면서 다시 주목해야 할 主題가 되었다. 口訣은 薛聰 以前 義湘(625年-702年) 時代부터 발달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義湘大師의 華嚴經 講義를 集錄한 要義問答(智通記)과 一乘問答(道身章)이 우리말이 섞여 있는 著述이라는 것이 이 사실을 뒷받침해 준다.[1)]

(1) 蓋承親訓 故辭多詣妙訓(智通의 錐洞記, 三國遺事 義湘傳敎)

(2) 要義問答 二卷 僧傳云 錐穴問答是　智通述
一乘問答 二卷 僧傳云 道身章是　道身述
……宋僧史義湘傳云 或執筆書紳 懷鉛札葉 抄如結集錄 似載言如是義門 隨弟子爲目如云 道身章是也 或以處爲名 如云錐穴問答云云 但以當時集者 未善文體 遂致章句鄙野 雜以方言 或是大敎濫觴 務在隆機耳 將來君子 宣加潤色 (一乘問答 新編諸宗敎藏總錄, 一)

(2)는 義天이 저술한 新編諸宗敎藏總錄에 義湘 大師의 要義問答과

1) 南豊鉉(1988), 「釋讀口訣의 起源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100. (南豊鉉(1999ㄴ), 『國語史를 위한 口訣硏究』 25면 이하에 再錄) 참조.

一乘問答에 대해 註釋을 附記한 것이다. (1)과 (2)의 기록에 의하면 적어도 義天 당시까지는 義湘의 저술에는 우리말 문장을 표현한 것이 남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최근에 이를 間接的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들이 日本에서 나타나고 있다. 현재 日本에 남아 있는 8世紀와 9世紀 初의 訓點 자료 중에는 新羅의 華嚴宗 계통의 口訣 資料로 推定되는 자료가 여러 점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小林芳規 先生이 찾아낸 大谷大 所藏의 『判比量論』을 비롯하여 『華嚴刊定記』와 『華嚴文義要訣』 등이다. 이 외에도 768년(神護景雲 2年)에 書寫한 華嚴經에서도 신라 華嚴宗의 漢文 讀法 痕迹들을 확인할 수 있다. 逆讀點과 點吐를 비롯하여 釋讀順序表示와 句節線, 校正符號 등을 確認할 수 있다. 그리고 義天 자신도 淸凉疏에 의거하여 華嚴經을 번역한 바 있다.[2] 義天이 직접 번역하거나 義天 당시에 남아 있던 佛經 飜譯本들의 존재도 기록으로 알 수 있다. 의천 당시의 번역본들은 釋讀口訣로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다음 (3)과 (4)의 三國史記와 三國遺事의 기록은 薛聰과 관련된 기록들이다.

(3) 以方言讀九經 (三國史記)

(4) 聰生而睿敏 博通經史 新羅十賢中一也 以方音通會華夷方俗物名 訓解六經文學 至今海東業明經者 傳受不絶 (三國遺事 卷四, 17張)

(3)과 (4)의 기록은 이미 잘 알려진 것이다. (3)은 薛聰이 九經을 우리

2) 南權熙(2002: 610-611)에서도 언급된 바 있듯이 義天 자신도 직접 1094년에서 1097년 사이에 海印寺에서 主席하면서 三本 華嚴經 등을 講說한 바 있고 이것들을 方言으로(우리말로) 飜譯한 바 있다.

……所有講演諸部三百餘卷 而花嚴三本共一百八十卷 雖有古人相承之說 吾并不用 但依本疏 飜譯方言 其南本涅槃三十六卷等亦尒 妙玄十卷等諸部 古無傳授者 不揆膚受 輒譯方言 亦有十餘部 高僧傳云 飜也者如飜錦綺 但花有左右耳 故云錦飜……(大覺國師文集 卷義二十, 外集)

말로 읽었다는 사실을 기록한 것이고, (4)는 薛聰이 뛰어나 經과 史에 能通하고 우리의 音으로 華夷의 方俗 物名을 읽었을 뿐 아니라 六經 文學을 풀이하였다는 것이다. 이것은 佛經뿐 아니라 薛聰이 歷史書나 儒家의 經典까지도 우리말로 풀어서 읽거나 해석할 수 있었음을 證據하고 있는 것이다. 薛聰이 이와 같이 經書들과 歷史書 등을 우리말로 읽고 풀이할 수 있었던 것은[3] 薛聰보다 한 세대 앞선 시대에 初期의 口訣이 발달되어 있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실제로 (1)이나 (2)와 같은 기록뿐 아니라, 薛聰이 활동하기 以前의 初期 吏讀 資料나 8世紀의 口訣 자료들도 남아 있다. 물론, 薛聰이 吏讀를 포함하여 차자표기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킨 인물일 가능성은 아주 높다. 南豊鉉(1988, 2002)에서도 이런 사실에 근거하여 韓國 구결의 발생이 義湘 時代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 바 있다.[4]

2.2. 口訣의 種類

最近에 와서 角筆로 기입한 符號口訣 資料들이 發掘되고 또, 漢文을 부분적으로 해석하면서 읽은 古代 資料들이 발굴되면서 口訣 資料들을 어떻게 분류하고 정리하는가 하는 문제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2.2.1. 口訣은 먼저 그 表記方式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즉, 문자를 사용하여 구결을 기입하는가 아니면 점이나 선, 또는 한문 석독 순서를 숫자나 부호로 표시하는가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

3) 그러나 儒敎 經書나 歷史書 등에 토가 달린 오래된 구결 자료들이 日本과는 달리 유감스럽게도 현재 韓國에는 남아 있지 않다. 儒敎 經書의 口訣 資料는 15세기의 자료도 아주 드물고 주로 16세기 이후의 자료만 傳하고 있다.

4) 南豊鉉(2002: 78)에서는 日本의 宣命書(Senmyôgaki)나 祝詞(Norito) 등에 한국어의 吐에 대응될 수 있는 文法形態의 表記가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百濟 時代 末期에 吐의 표기가 발달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한 바 있다.

할 수 있을 것이다.

符號口訣

文字口訣 ┌ 借字口訣
　　　　└ 한글口訣

한글 創製 以前에는 漢字를 빌려서 만든 口訣字를[5] 사용하여 口訣文을 작성하였다. 借字口訣에는 漢字 正字를 사용하는 경우와, 漢字의 字形 중 一部分을 취하거나 略體字(또는 半字), 筆劃이 簡單한 한자의 草書體에서 따와서 새롭게 만든 口訣文字를 사용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口訣文字를 이용하여 口訣을 기입하기 전에는 주로 點吐를 포함한 다양한 符號들을 사용하여 漢文을 자신의 口語로 解釋하거나 飜譯하였다.

<사진 1>은 각필로 기입한 符號口訣이다. 각필 스코프를 사용하여 촬영한 것이다. 구결자를 사용하기 전 부호를 사용하여 구결을 기입한 것이다. 성암고서박물관에 소장된 晉本『華嚴經』卷20은 新羅 寫經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木版本이다. 字體나 紙質 등으로 보아 初雕大藏經보다 刊行時期가 1세기 이상 앞서는 것으로



<사진 1> 晉本『華嚴經』
卷20(誠庵古書博物館 所藏本)

5) 이 글에서는 借字口訣에는 사용되는 口訣字 중 漢字의 略體字(또는 半字)나, 筆劃이 簡單한 漢字의 草書體에 의거하여 새롭게 만들어진 것을 口訣文字라 부르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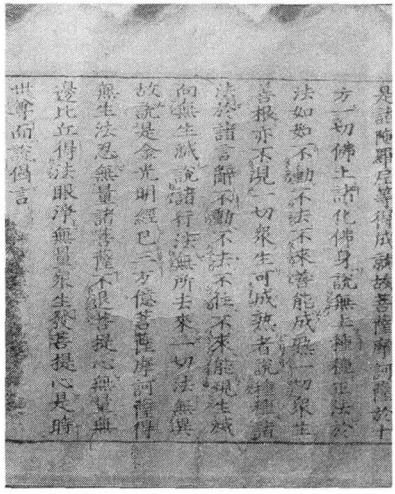


<사진 2> 초조대장경『瑜伽師地論』卷五(誠庵古書博物館 所藏本)에 나타난 符號口訣

10세기 자료로 추정된다.[6]

<사진 2>는 초조대장경『유가사지론』卷五에 각필로 기입되어 있는 부호구결이다. 이 자료에는 부분적으로 부호구결에 즉, 점토에 대응되는 문자 구결도 같이 병기한 것도 몇 군데 보인다. 이 자료는 그 중 하나이다.

다음 <사진 3>과 <사진 4>는 구결문자로 기입된 석독구결과 음독구결 자료이다.



<사진 3>『金光明經』卷3
(木版本, 卷子本, 高麗時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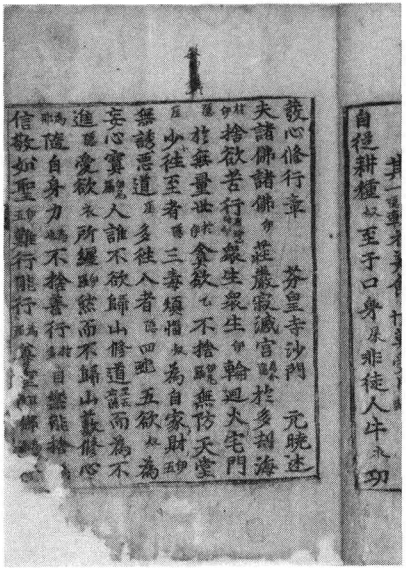


<사진 4>『圓覺經』(호암박물관 소장본, 고려시대)

6) 晉本 華嚴經이란 舊譯 화엄경으로 60卷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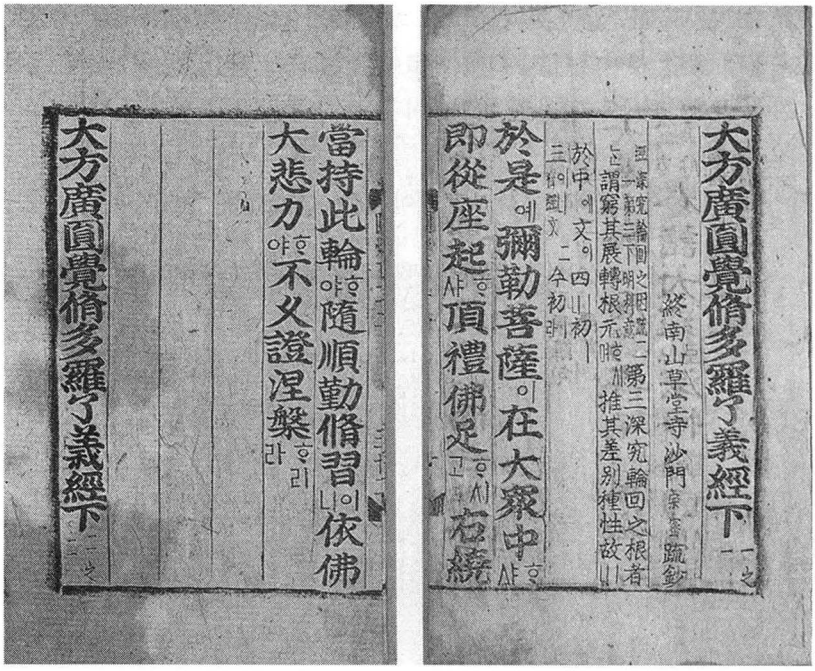
<사진 3>은 『金光明經』 卷3으로 우리가 그 동안 석독구결 자료로 활용해 왔던 것이다. 借字口訣 자료이다. 최근에 다시 이 자료에서 우리는 새로운 묵서와 각필로 기입되어 있는 부호구결도 발견한 바 있다(3장 참조).

<사진 4>는 借字口訣로 기입되어 있는 音讀口訣 자료이다.



<사진 5> 『誡初心學人文』(16세기 자료, 發心修行章 부분)

<사진 5>는 16세기 음독구결 자료이다. 이 자료의 특징은 구결자가 漢字 正字로 한문 원문과 함께 목판에 같이 새긴 점이다. 이와 같이 구결자를 원문과 같이 목판에 새긴 자료 중에는 구결자를 한자 정자를 그대로 사용한 것이 많다.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下 一之
終南山草堂寺沙門 宗密 疏鈔
於是에 彌勒菩薩이 在大衆中ᄒᆞ야
即從座起ᄒᆞ샤 頂禮佛足ᄒᆞ고 右繞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下 二之
當持此輪ᄒᆞ야 隨順勤脩習이니 依佛
大悲力ᄒᆞ야 不久證涅槃ᄒᆞ리라

<사진 6> 『圓覺經(口訣)』(1465년, 活字本)

<사진 6>은 세조 대에 간행된 『圓覺經(口訣)』(1465년)으로 이 자료는 구결을 정음으로 표기한 音讀口訣 자료이다. 대부분 언해본에는 한글 구결이 병기된 것이 많다.

실제로 한글 創製 이후에도 借字口訣은 20世紀 초까지도 활발하게 사용되었다. 符號口訣도 초기의 성격이 부분적으로 변하긴 하였지만 朝鮮 後期까지는 사용되었다. 角筆로 記入한 한국의 符號口訣들은 東아시아의 漢文讀法史나 文字發達史에서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2.2.2. 한국의 口訣 자료를 漢文讀法 方式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釋讀口訣(一名 訓讀口訣이라고도 한 바 있다.)
音讀口訣(一名 順讀口訣이라고도 한다.)

즉, 이것은 口訣文을 內容的인 성격에 따라 분류한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口訣 자료를 분류하는 데 言語學的으로 의미가 있는 분류는 위의 두 가지 분류 정도면 충분하다. 符號口訣 중 初期 자료들은 모두 다 釋讀口訣 방식으로 읽을 수 있는 자료이지만 14世紀 후반 이후의 符號口訣 자료들 대부분은 音讀口訣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韓國의 口訣 자료들이 대부분은 오래된 古文獻들에 나타나기 때문에 이들 資料들을 文獻學的(書誌學的)으로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口訣 資料의 특징을 서지적인 기준에서도 살펴보는 것은 意味 있는 일이다. 口訣 吐의 記入 매체에 따라서 角筆口訣 資料와 筆寫口訣 資料, 印刷口訣 資料 등으로도 구분할 수 있다.

角筆口訣 資料는 毛筆 대신에 나무나 상아 등을 끝이 뾰족하게 다듬어 만든 필기구인 角筆을 사용하여 符號나 文字 등을 기입한 口訣 자료를 指稱하는 말이다. 角筆로 記入한 口訣 資料는 2000년 7월 초에 小林芳規 先生의 도움으로 처음 발견하기 시작하여 최근까지 많은 자료들이 발굴된 바 있다. 10世紀 경 자료부터 朝鮮 時代 後期까지의 角筆 口訣 資料들이 발굴되고 있다. 角筆로 기입된 口訣 資料 중에는 符號口訣뿐만 아니라 借字口訣 자료도 있고, 후대 자료 중에는 角筆로 記入한 한글 口訣 자료까지 다양하게 발견되고 있다. 물론 毛筆로 記入한 符號口訣 資料도 있다.

筆寫口訣 資料는 筆寫할 때 사용한 먹 등의 재료나 색깔에 따라 다시 墨書 吐나 朱書 吐, 靑吐(藍色 吐), 白吐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가장 일반적인 것은 墨書 吐 자료이다. 印刷口訣 資料는 木版本이나 活字本 등에 本文과 함께 吐도 함께 인쇄된 자료를 말한다(앞

에서 제시된 <사진 5>와 <사진 6>의 자료 참조). 活字本의 경우는 같은 종류의 金屬活字나 木活字로 漢文 原文뿐 아니라 吐까지도 기입한 口訣資料를 가리킨다.[7]

3. 符號口訣

符號口訣은 口訣文字를 사용한 釋讀口訣이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前부터 漢文을 訓讀할 때 사용되는 등, 漢文讀法史에서 중요한 意味를 가진다. 點吐나 符號를 사용하는 後代의 符號口訣 중에는 音讀口訣의 성격을 띠는 자료도 있지만, 현재 남아 있는 8世紀부터 13世紀까지의 符號口訣 자료는 모두 釋讀口訣의 성격을 띠고 있다.

符號口訣 자료는 부호를 기입한 도구에 따라 角筆로 點吐를 기입한 角筆 符號口訣 자료와 墨書나 朱書, 白書 등으로 기입한 자료 즉, 毛筆을 사용하여 點吐나 각종의 符號를 표시한 墨書 符號口訣 자료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사진 7>은 각필로 부호구결을 기입한 것이다. 角筆은 筆記 도구로서 符號나 文字뿐 아니라 그림의 밑그림, 寫經의 邊欄이나 계선을 그리는 데도 사용한 바 있다. 角筆로 기입한 符號나 文字 중에는 漢文

---

7) 南權熙(2002: 579-585)에서는 기입 매체에 따라 筆寫口訣, 板刻口訣, 活字口訣, 角筆口訣 등으로 구분한 바 있다. 이 외에도 그는 책의 원문에 口訣이 記入되어 있는 위치에 따라 天頭口訣, 本文口訣, 左右口訣 등으로 구분한 바 있는데, 吐가 책의 본문 행간에 나란히 本文과 함께 달리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것이다. 筆寫로 기입된 자료들 중 대부분이 이 유형의 자료에 해당된다. 木板이나 活字로 간행된 자료는 吐가 小字雙行으로 본문의 行間 사이에 본문과 연결하여 표시한다. 天頭口訣은 冊의 上段 餘白에 口訣을 기록한 것으로 대개는 本文 중에 吐가 記入될 위치에 '·'이나 '◦' 등이 表示되어 있다. 그리고 책의 左右 邊欄 바깥 餘白에 吐를 기입하거나 인쇄한 자료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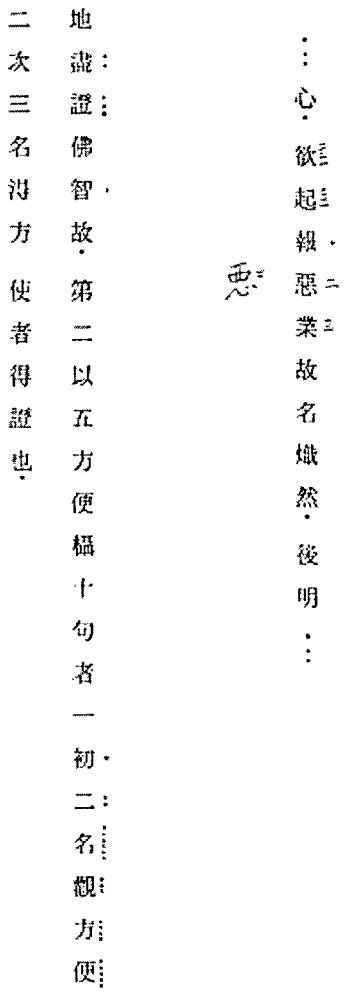


<사진 7> 초조대장경『유가사지론』 권5(성암고서박물관 소장본)

經典을 우리말로 이해하기 위한 釋讀 表示(즉, 點吐나 文字吐 사용, 또는 부분적인 訓讀, 漢文 解釋順序表示 등)뿐만 아니라, 聲調 表示, 句讀를 표시하는 句節線과 合符線 등을 포함한 각종 指示符號와 校正符號, 節博士 등이 있다. 角筆은 조선시대 後期까지도 쓰여 本文의 내용을 교정하거나 補完하는 내용을 적은 것도 있다. 또, 口訣文字나 한글 구결을 표시한 경우도 있다. 후대 자료 중에는 드물긴 하지만 角筆을 사용하여 한글을 적은 자료도 남아 있다(사진 18 참조).

3.1. 初期의 口訣 자료 중에는 口訣文字를 사용한 口訣보다는 漢文을 우리말 語順으로 읽고 해석한 자료들이 대부분이다. 口訣에서 어순을 표시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逆讀符號를[8] 사용하거나 逆讀符號와 함께 漢文構成素에 '一, 二, 三, 四, 五, 六…'과 같은 數字를 사용하여 口訣文의 語順을 표시하거나, 點이나 짧은 橫線을 이용하여 우리말로 訓讀해야 할 順序를 표시하기도 한다. 즉, '·, ∶, ⁝, ⁞' 이나 또는 '-, =, ≡, ≣' 등과 같은 부호를 사용하여 漢文을 우리말로 읽는 順序를 표시한 자료들이 많았다. 角筆로 기입한 符號口訣에서는 逆讀點이나 逆讀線, 合符線 등의 부호를 이용하여 釋讀의 順序를 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런 방식은 高麗時代의 釋讀口訣에서 行의 左右에 口訣 吐를 기입하고 逆讀點을 사용하여 漢文의 語順을 우리말 語順으로 바꾼 방식과는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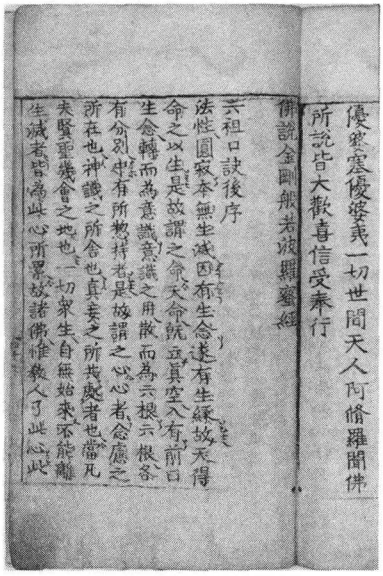
8) 日本에서는 이것을 返點(Kaeriten)이라고 한다. 小林芳規(1974)는 "返點の沿革"(『訓點語と訓點資料』 第54輯)에서 返點이 8世紀 末에 처음으로 나타난다고 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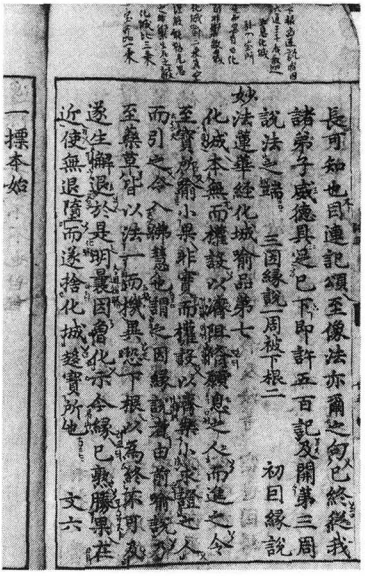
<사진 8>『續華嚴略疏刊定記』卷第九(東大寺 所藏本, 圖書分類番號 101-8-1)

東大寺 所藏本인『續華嚴略疏刊定記』卷第九는 日本 重要文化財로 지정된 奈良時代末 筆寫本이다. 朱書校合朱訓讀点 등이 나타나는 자료이다. 이 자료의 끝부분에 訓讀의 순서를 나타내는 표시가 朱書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 <사진 8>은 자료 사진을 직접 촬영할 수가 없어서 필자가 다시 만든 자료이다.



<사진 9> 『金剛般若波羅蜜經』
(청주고인쇄박물관 소장본, 고려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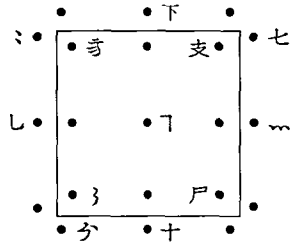
<사진 10> 『法華經』(조선시대, 訓讀 順序 표시와 音讀口訣 등이 기입되어 있다)

<사진 9>와 <사진 10>의 자료들은 8세기나 9세기의 한문 석독 순서가 표시된 자료들과 비교될 수 있는 후대의 자료들이다. <사진 9>의 고려본 『金剛般若波羅蜜經』에는 한문 원문을 한국어로 번역하여 읽은 釋讀(訓讀) 順序 표시를 점의 개수로 표시하고 있다. 이 자료에는 音讀口訣도 같이 기입되어 있다. <사진 10>은 藤本幸夫(1992)에서 소개된 바 있는 조선시대의 『法華經』으로 한문 訓讀 順序 표시와 音讀口訣 등이 같이 기입되어 있는 자료이다.

대개 漢數字 등을 사용하여 語順을 표시하는 자료들은 資料의 전체 내용 중에서 일정한 부분을 해석하거나 번역할 때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이 자료들 중 일부는 그 동안 漢文 訓讀資料 등으로 다루어 온 것

이다. 본 논문에 제시된 寫眞들에서도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高麗時代 佛經 자료나 訓民正音이 창제된 이후의 자료들 중에서도 이런 자료들은 부분적으로 남아 있다.[9]

3.2. 符號口訣은 漢字를 四角形(□)으로 인식하고, 한자의 上下, 左右邊 위·아래와 밖에 각각 세 곳씩 12 자리와 漢字의 내부에도 上中下 3段에 각각 3 자리씩 9 자리에 점토를 표시하여 한문을 우리말로 읽어나가는 것이다. 點吐가 기입되는 위치는 한자를 사각형으로 인식하여 한자 내부의 9 자리를 포함하여 21 자리인 것으로 보인다(誠庵古書博物館 所藏本인 晉本 華嚴經 卷20의 경우).



부호구결 자료의 점도는 각각 그 유파나 계파 등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釋讀口訣 방식으로 읽을 수 있는 符號口訣 자료는 일반적으로, 한문의 句節 끝에 點吐를 몰아서 표시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런 현상은 口訣文字로 기입되어 있는 釋讀口訣과는 차이를 보이는 점이다. 한문의 句讀處에 吐를 다는 音讀口訣과 일견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符號口訣에 사용된 符號는 點과 線을 기본으로 하여 이들을 합한 부호 등으로 이루어진다. 點 하나로 표시되는 單

9) 본고에서는 이와 같이 漢文 全體 原文 중에서 일부 구절이나 文章에 대해 數字나 點 또는 짧은 橫線 등의 符號를 사용하여 우리말 語順으로 訓讀한 자료들도 符號口訣이나 釋讀口訣의 범주에 넣어 같이 다룰 것이다.

點吐가 符號口訣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雙點은 방향에 따라 水平, 垂直, 斜線, 逆斜線 방향 등 네 가지가 있다. 각필 부호구결에서는 點 외에 짧은 線으로도 懸吐하는데 이것도 방향에 따라 水平, 垂直, 斜線, 逆斜線 등으로 나타난다. 點과 線이 합하여 이루어진 點吐도 있는데 點과 線의 위치와 방향에 따라 다시 8 가지로 그 유형을 나눌 수 있다. 이 중 '!, ¡' 등과 같은 형은 편의상 '느낌표' 형으로, '⺀'나 '⺁' 등은 편의상 '눈썹' 형으로 우리가 불러온 것이다. 그리고 晉本 華嚴經 卷20에는 세 점으로 이루어진 點吐(∴)도 나타난다. 이것은 다른 각필 부호구결 자료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現在 국내에 남아 있는 10世紀부터 13世紀까지의 符號口訣 자료는 상당히 복잡하고 정밀한 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런 사실은 그 以前부터 이런 방식의 漢文 讀法 方式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韓半島에 남아 있는 아주 이른 時期의 文字 資料들과 初期의 吏讀 자료들, 그리고 鄕歌 등의 존재와 現在 日本에 남아 있는 新羅 華嚴宗 系統의 訓讀 資料 등이 존재한다는 것은 이런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실제로 일본에 남아 있는 8世紀의 訓點資料들 대부분은 新羅의 華嚴宗과 관련된 口訣 資料로서 이들은 韓國의 口訣 독법으로 읽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최근 小林芳規 先生의 연구들은 일본에 남아 있는 신라 화엄종 계통의 8세기 자료들을 통하여 日本의 訓點이나 假名과 한국의 口訣과의 역사적인 관련성을 밝힌 것으로 주목해야 한다.

符號口訣은 앞에서 설명한 符號들을 사용하여 點吐가 記入될 일정한 자리에 符號를 기입하여 懸吐한 구결이다. 이를 풀어서 읽으면 그 당시의 우리말로 漢文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방식은 日本의 訓點과 같은 방식이다. 角筆로 記入한 符號口訣은 國語史와, 韓·日 文字交流史, 漢文 讀法史 등에 있어서도 劃期的인 자료로 평가된다. 지금까지 발견된 符號口訣 자료에는 角筆로 기입된 符號口訣 자료와

墨書로 기입된 부호구결 자료가 있는데, 點吐를 記入하는 방법 등에서는 같지만, 그 宗派와 系派에 따라 點圖에서는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몇 가지 點吐는 모든 자료들에서 같은 音으로 읽힐 수 있는 것도 있다. 漢字의 □ 안 쪽 한 가운데 한 점을 찍은 것이 있는데, 이 '⊡'는 'ㄱ'(은)으로 해독할 수 있다. 이 '⊡'은 지금까지 발굴된 모든 각필 符號口訣, 즉 瑜伽師地論의 符號口訣과 周本 華嚴經의 符號口訣 등에서도 'ㄱ'(은)으로 해독된 것이다.

지금까지 발굴된 角筆로 기입된 符號口訣 자료들은[10] 口訣硏究 第7輯(2001年 8月) 彙報와 小林芳規・西村浩子(2001)와 小林芳規(2002) 등에 실려 있다. 이들 자료 중에는 극히 한 두 구절에만 각필로 기입되어 있는 자료들도 다 포함되어 있다. 그 중 초기 符號口訣 자료들과 의미가 있는 자료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華嚴經 符號口訣 資料로는 지금까지 7 종의 자료가 발견된 바 있다. 이들 각 자료는 처음부터 끝까지 點吐를 懸吐하여 한문을 우리말로 飜譯하면서 읽은 자료로 그 양에 있어서도 상당한 분량이다.

① 晉本華嚴經 卷20(誠庵古書博物館 所藏本): 新羅 寫經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木版本이다. 字體나 紙質 등으로 보아 初雕大藏經보다 刊行時期가 1세기 이상 앞서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② 周本華嚴經 卷6(誠庵古書博物館 所藏本): 國寶 203號로 指定된 木版卷子本이다. 卷首에 '海東沙門守其藏本'이란 所藏印(가로 2.4cm, 세로 4.4cm)이 찍혀 있는 貴重한 자료이다.

10) 이 논문에서는 2004년 8월까지 발굴된 구결 자료만을 다루었다. 그 이후에 발굴된 자료들 중에도 중요한 자료들이 많다. 필자가 日本 南禪寺에서 발굴한 각필로 기입한 부호구결 자료인 초조대장경 『유가사지론』 권8은 국내 성암고서박물관에서 발굴된 『유가사지론』 권8과 바로 대비할 수 있어서 그 의의는 크다. 이 자료는 『금광명권』 권3 등과 함께 앞으로 부호구결 연구에 획기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③ 周本華嚴經 卷22(誠庵古書博物館 所藏本)
④ 周本華嚴經 卷31(湖林博物館 所藏本)
⑤ 周本華嚴經 卷34(湖林博物館 所藏本)
⑥ 周本華嚴經 卷36(誠庵古書博物館 所藏本): 國寶204號로 지정되어 있는 木版卷子本이다. 卷首에 精巧한 變相圖가 있다.
⑦ 周本華嚴經 卷57(誠庵古書博物館 所藏本)

『瑜伽師地論』 중에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들이 각필로 記入된 符號口訣 자료로 발견된 바 있다. 이 자료들에는 각필로 쓴 口訣文字도 함께 나타난다.

⑧ 瑜伽師地論 卷8(誠庵古書博物館藏)
⑨ 瑜伽師地論 卷5(誠庵古書博物館藏)
⑩ 瑜伽師地論 卷3(湖林博物館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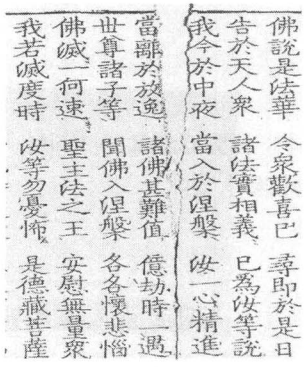
이 외에 法華經에도 符號口訣이 기입된 자료가 발견된 바 있다.

⑪ 法華經 卷1(延世大學校圖書館 所藏本)

⑪은 본래 卷子本이었던 것을 다시 線裝本으로 改裝한 것이다.

3.3. 符號口訣 자료에는, 앞에서도 언급한 바 있듯이, 角筆 符號口訣 자료와 墨書 符號口訣 자료 등이 있는데 이 중 墨書 符號口訣 자료는 이미 1995年 겨울에 筆者와 韓國精神文化研究院팀의 祇林寺 자료 조사에서 筆者가 발견한 바 있다. 그 자료가 바로 高麗時代 木版本인 『法華經』(祇林寺本)이다(사진 11 참조).

이 자료는 音讀口訣과 함께 묵서로 기입한 부호구결도 같이 있는 자료이다. 當時로서는 筆者가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符號들이 記



<사진 11>『법화경』
(기림사 소장본, 고려시대)

入되어 있었다. 그 當時 필자는 이것이 日本의 訓點 資料와 비슷한 면이 있다는 정도로 파악하고 연구자들에게 소개한 바 있다.[11] 현재 이 자료의 마이크로 필름은 한국학중앙연구원(舊 韓國精神文化硏究院)에 보관되어 있다. 이 외에도 筆者는 몇 년 전에 高麗時代 墨書 符號口訣 資料 2 점을 개인 소장 자료에서 추가로 확인한 바 있다. 『般丹三昧經』 上<사진 12>과 『大乘法界無差別論』<사진 13> 등이 그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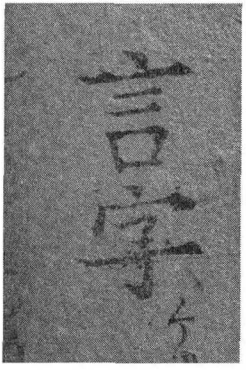
<사진 12>『반주삼매경』(고려시대)

11) 이 法華經은 慶州 祇林寺의 毘盧舍那佛像(寶物958號)의 腹藏에서 나온 것이다. 그 腹藏一括典籍을 文化財(寶物959號)로 지정할 때 이 자료는 상태가 나빠서 빼놓았던 것이다. 이 자료에 기입되어 있는 부호들이 日本의 訓点과 매우 類似하다는 사실은 이미 南權熙(1997)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최근에 南權熙 교수 등이 이 자료를 다시 촬영하여 현재 조사 연구 중에 있다.


大乘法界無差別論

<사진 13> 『大乘法界無差別論』(고려시대 再雕大藏經)
墨書로 기입된 符號口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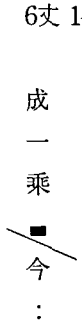
다음 <사진 14>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석독구결 자료인 『合部金光明經』 卷3이다. 이 자료는 釋讀口訣이 기입되어 있는 자료인데,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자료를 다시 조사하는 과정에서 묵서로 기입된 부호구결과 角筆로 기입된 符號口訣도 함께 기입되어 있음을 새롭게 발견한 것이다. 이 자료는 釋讀口訣과 符號口訣을 비교하면서 해독할 수 있는 획기적인 자료로서 새로운 가치를 가진다.



<사진 14>
『金光明經』卷3(高麗, 13세기 중엽, 목판본, 권자본)

이와 같이 角筆로 記入된 符號口訣 자료들은 앞으로도 더 많이 발굴될 수 있을 것이다. 2004년부터 고려대장경연구소를 중심으로 수행하고 있는 '初雕大藏經의 조사연구 및 영인(정보화) 사업'으로 자료들 조사하고 촬영하던 중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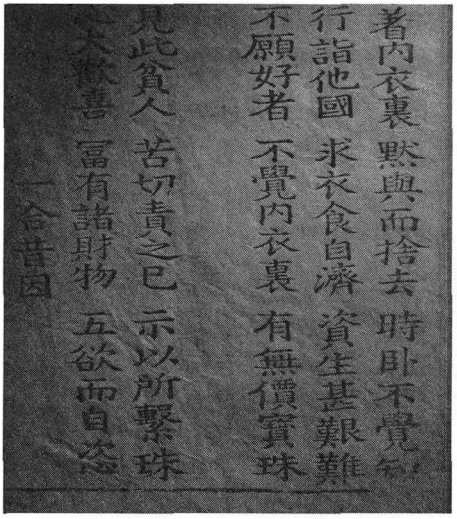
釋讀口訣 자료인 『合部金光明經』 卷3(個人 所藏)에서도 角筆로 기입된 符號口訣과 墨書로 기입된 符號口訣을 다시 발견할 수 있었다. 이것은 바로 고려시대의 釋讀口訣과 부호구결을 직접 비교할 수 있는 자료로서 획기적인 것이다. 앞으로 초기의 符號口訣의 解讀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외에도 필자가 개인적으로 조사한 자료들 중에서는 續藏經 『華嚴經疏』 卷一(個人 所藏)과 『法華經』卷4(1240년, 高麗 高宗 27, 木版本 절첩본, 송일기 교수 소장본) 등에서도 각필로 기입된 符號口訣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중 續藏經 『華嚴經疏』 卷一에 각필로 기입되어 있는 句節線이 많이 보이는데 이것은 東大寺에 所藏되어 있는 續藏經 『華嚴經疏』 卷三의 경우도 마찬가지다.[12]



<續藏經 『華嚴經疏』 卷三(東大寺 所藏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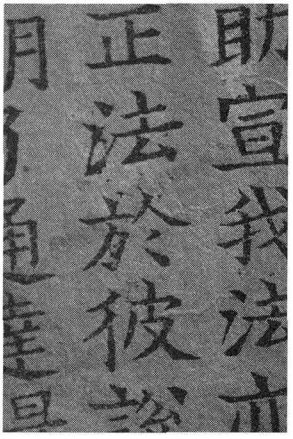
위에 제시된 예는 먼저 角筆로 句節線을 표시한 뒤에, 다시 또 불심지를 이용하여 구절선을 표시한 것이다.

12) 이 자료들을 조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小林芳規 先生과 東大寺 圖書館의 先生들에게 感謝한다. 卷首題가 大方廣佛花嚴經隨疏演義鈔卷第三上이고 卷尾題도 동일하다. 이 자료에는 불심지를 사용하여 疏 부분 표시하거나 句節線이나 註釋, 疏 部分 등을 角筆이나 朱書로도 표시하고 있다. 이 자료에서는 朱書로 疏 부분의 경계 표시를 '丁'로 표시하고 있다.



<사진 15>『法華經』卷4(高麗, 1240년, 송일기 교수 소장본), 角筆로 記入되어 있는 符號口訣

14世紀 이후 後代에 角筆로 기입된 口訣 자료는 대부분이 音讀口訣의 범주에 속한다. 修德寺에 所藏되어 있는 15세기와 16세기의 일부『法華經』자료들 중에는 音讀口訣과 함께 音讀口訣로 解釋될 수 있는 단순한 符號口訣 자료들이 남아 있다.[13] 일반적으로 14世紀 以後에 記入된 符號口訣 자료들은 대부분이 단순한 點吐를 사용한 音讀口訣 자료들이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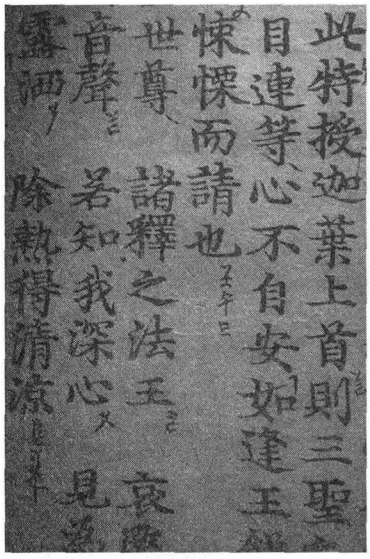


<사진 16>『法華經』(조선시대, 수덕사 소장본) 角筆로 記入되어 있는 符號口訣과 口訣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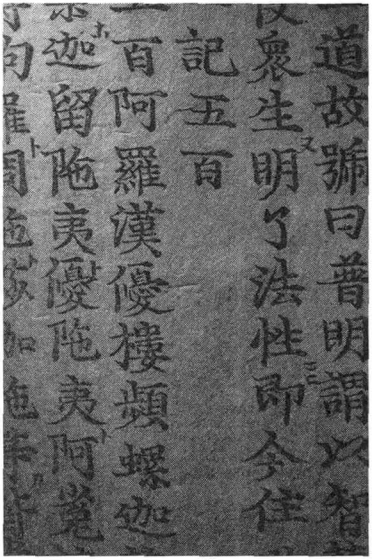
<사진 15>는 송일기 교수의 소장본으로 角筆로 符號口訣을 기입한 자료이다. 이 부호구결의 성격은 음독구결의 성격을

13) 이 자료들 중에는 角筆로 한글이 기입되어 있는 자료도 있다.

띤다. <사진 16>과 <사진 17, 18> 등은 수덕사에 소장되어 있는 16세기 초에 간행된 『法華經』에 각필로 기입되어 있는 자료들이다. 이 자료에는 묵서로 音讀口訣이 記入되어 있을 뿐 아니라, 角筆로 간단한 符號口訣과 口訣字 그리고 한자음 등이 표기되어 있다



<사진 17> 『法華經』(16세기, 수덕사 소장본)
* 이 자료에는 墨書로 기입된 音讀口訣뿐 아니라 角筆로 記入되어 있는 借字口訣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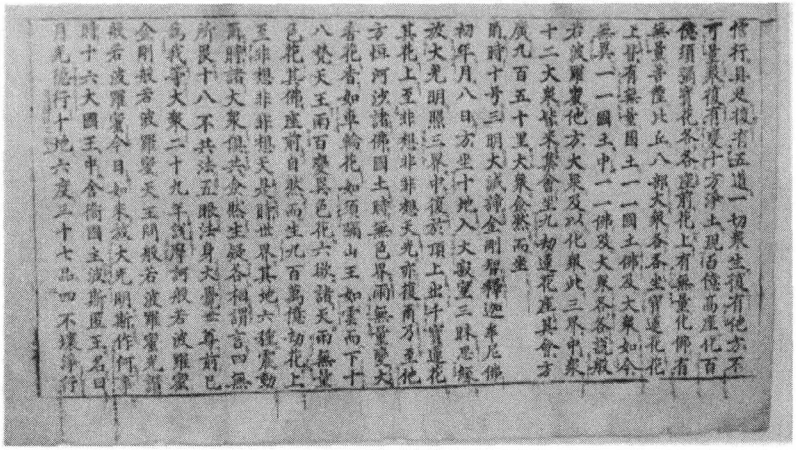


<사진 18> 『法華經』(16세기, 수덕사 소장본)
* 角筆로 漢字音을 한글로 표기한 것이다.

4. 釋讀口訣

4.1. 釋讀口訣은 한문을 우리말로 새겨서 읽었던 방법의 하나로 완전한 번역문의 성격을 띤다. 釋讀口訣을 읽는 방법은 한문의 구성소 가운데 먼저 그 오른쪽에 吐가 붙어 있는 것부터 차례로 읽어 내려가다가 그 토의 끝이나 원문 한자의 밑에 점이 있으면 다시 위로 올라가 왼쪽에 토가 붙어 있는 구성소를 읽는 방법으로 읽으면 우리말 순서로

읽게 되는 것이다. 이 때 만일 왼쪽에 토가 붙어 있는 構成素에 逆讀點(·)이 또 붙어 있으면 다시 위로 올라가 왼쪽에 吐가 붙어 있는 구성소를 마저 읽은 다음 아래로 내려와 오른쪽에 吐가 붙어 있는 것을 차례로 읽어 나가면 된다. <사진 19>는 한국에서 가장 먼저 발견된 釋讀口訣 자료인 舊譯仁王經 上 落張本이다. 이 자료는 13세기 자료로 서산 문수사에서 처음 발견된 것이다. 한국의 구결 연구와 국어사 연구에 새로운 장을 연 자료이다. 실제 자료를 통해서 석독구결을 읽어보면 다음과 같다.



<사진 19> 舊譯仁王經 上(木版本, 落張本, 13세기)

A: […]信行し具足ソニカ復ソ丁有セナカ五道セ一切衆生ㅣ、復ソ丁有セナカ他方セ不矢ㅣㅌセ可セソ丁.量ノ亢、衆、

B: […]信行し 具足ソニカ 復ソ丁 五道セ 一切 衆生ㅣ 有セナカ 復ソ丁 他方セ 量ノ亢 可セソ丁 不矢ㅣㅌセ 衆 有セナカ <舊仁02:01-2>

B′: […]信行乙 具足爲示彌 復爲隱 五道叱 一切 衆生是 有叱在彌 復爲隱 他方叱 量乎音 可叱爲隱 不知是飛叱 衆 有叱在彌 <舊仁02:01-2>

C: […]信行ᄋᆞᆯ 具足ᄒᆞ시며 ᄯᅩᄒᆞᆫ 五道ㅅ 일체 즁ᄉᆡᆼ이 잇겨며 ᄯᅩᄒᆞᆫ 他方ㅅ 量홈(혜아룜) 짓ᄒᆞᆫ 안디이ᄂᆞᆺ 무리 잇겨며

D: […]신행을(淸信行을) 구족하시며 또 五道의 모든 중생이 있으며 또한 他方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무리가 있으며

A는 원문의 세로쓰기로 되어 있는 것을 가로쓰기로 옮겨놓은 것이다. 왼쪽에 기입되어 있는 吐는 위 添字를 사용하여 표시한 것이다. B는 이것을 우리말 순서로 풀어서 읽은 것이다. B′는 구결문자를 한자의 原字로 바꾸어 표시해 본 것이다. 그 결과는 향가의 표기법과 같은 양상을 보인다. C는 B의 석독구결문을 15세기 訓民正音 表記로 바꾼 것이고, D는 이것에 대한 現代譯이다.

釋讀口訣의 特徵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釋讀口訣 資料는 일반적으로 漢文의 原文 左右 行間에 口訣文字로 吐를 기입하고 逆讀點을 사용하여 漢文을 韓國語의 어순으로 飜譯하면서 읽은 것이다.

둘째, 한국어의 語順을 표시하기 위해 주로 逆讀點이나 左側吐를 사용한다.

셋째, 한문의 原文 漢字는 韓國 漢字音으로 音讀하기도 하고 訓讀하기도 한다.

넷째, 釋讀口訣에 사용된 吐는 音讀口訣과 마찬가지로 助詞와 語尾 등의 表記가 많지만, 音讀口訣에서 볼 수 없는 다른 성격의 吐들도 많이 사용하고 있다. 漢字의 釋을 표기한 것과 末音添記法도 사용하고 있다. 末音添記를 한 경우는 항상 訓讀된다.

4.2. 지금까지 발굴된 13세기 후반까지의 釋讀口訣 자료는 7 종이다.

① 均如(923년-973년)의 『釋華嚴敎分記』에 남아 있는 釋讀口訣 두 문장.

② 『大方廣佛華嚴經疏』 卷35 : 木版本, 折帖, 12세기의 국어 자료로 추

정함. 개인 소장.

③『大方廣佛華嚴經』卷14 : 木版本, 折帖, 12세기 후반에서 13세기 전반의 국어 자료로 추정함. 개인 소장.

④『金光明經』卷3 : 木版本, 卷子, 13세기, 瑜伽師地論과 같은 類의 자료로 추정한다. 卷首와 卷末의 2장씩은 다른 사람에 의해 기입된 구결로 보인다. 김병구氏 소장.

⑤『舊譯仁王經』卷上 : 木版本, 5張 落張本. 木版本이고 25행 17자본으로 折帖本의 흔적을 남기고 있다. 13세기의 구결 자료로 추정한다. 현재는 수덕사 성보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⑥『瑜伽師地論』卷20 : 木版本, 卷子本이고 釋讀口訣 資料 瑜伽師地論 卷20은 再雕大藏經 판본이다. 13세기 후반 자료로 추정함. 瑜伽師地論 석독구결은 지금까지 발굴된 釋讀口訣 자료 중 문자체계나 언어 현상에 있어서 가장 후대의 언어 현상을 반영하고 있다. 南豊鉉 교수 所藏本이다.

⑦ 이 외에도 釋讀口訣 자료에는 角筆 符號口訣 자료인 誠庵古書博物館 所藏本인 晉本『華嚴經』卷20의 欄上에 교정되어 있는 내용에 보이는 한 문장을 추가할 수 있다. 이 資料의 제13장 17행 위의 欄上에 원문의 내용을 수정하여 묵서로 기입하고 있는데 바로 이것이 釋讀口訣로 되어 있다.

誠庵古書博物館에 所藏되어 있는 晉本『華嚴經』卷20은 初雕大藏經보다 앞서는 판본으로 10세기까지 그 간행시기가 올라갈 수 있다. 따라서 이 釋讀口訣 文章에 사용된 口訣文字 'ㅋ'(이/의) 'ㄷ'(ㅅ) 'ㅈ'(아) 'ㅓ'(기/긔) 등도 아주 이른 시기부터 사용된 口訣文字로서 가치를 가질 것이다.

난상 : 有本云 衆生ㅋ 身ㄷ 中ㅈ ㅓ



원문 : 於一切衆生身

위에 제시한 釋讀口訣과 각필로 기입한 부호구결을 직접 비교해보면 'ㅁ'가 'ㅢ'(의)에 대응되고, 'ㅁ'이 'ㄴ'(ㅅ)에 대응됨을 알 수 있다.

현재 남아 있는 釋讀口訣 자료는 10세기부터 13세기 후반까지의 자료이지만 여기에 반영되어 있는 言語 현상은 아주 保守的이다. 이런 현상은 각필로 기입된 10世紀와 11·12世紀의 符號口訣 자료도 마찬가지다. 이 時期의 口訣 자료들이 반영하고 있는 言語 現象은 鄕歌에 나타나는 언어 현상과 類似하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8世紀의 吏讀 자료들이 반영하고 있는 文法 현상과도 일치하는 것이 아주 많다. 현재 일본에 남아 있는 신라의 화엄종 계통의 문헌들에 남아 있는 8세기의 훈독 자료들과도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 구결 자료가 가지는 이러한 保守的인 현상은 당시 僧侶들이 宗派나 系派에 따라 스승이 읽고 해석해 놓은 口訣을 대대로 傳授하면서 學習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재 남아 있는 釋讀口訣 자료와 각필로 기입한 초기 符號口訣 자료들은 직접 필사하거나 각필로 기입한 자료이긴 하지만 그 뛰어난 필치나 정밀한 체계 등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단순히 개인적으로 읽고 해석한 결과를 적어놓은 자료로 볼 수 없다. 그것들은 스승 또는 先輩들이 기입해 놓은 구결을 그대로 옮겨 적어 놓은 正本의 성격이 강하다. 현재 남아 있는 석독구결 자료 중에는 스승을 통해서 전해내려 오는 구결을 그대로 옮겨 적다가 잘못 적거나 잘못 적은 것들을 修訂한 것도 있다.

釋讀口訣이 國語史에서 차지하는 가치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釋讀口訣은 古代國語의 문법 체계를 기술할 수 있는 국어 문법사의 寶庫이다. 석독구결은 고대국어의 문법 현상을 풍부하게 보여주는 자료인바, 이것을 高麗末 朝鮮 初期의 음독구결 자료나 15세기

국어 자료 등과 비교해 보면 국어 문법사를 한층 더 충실하게 기술할 수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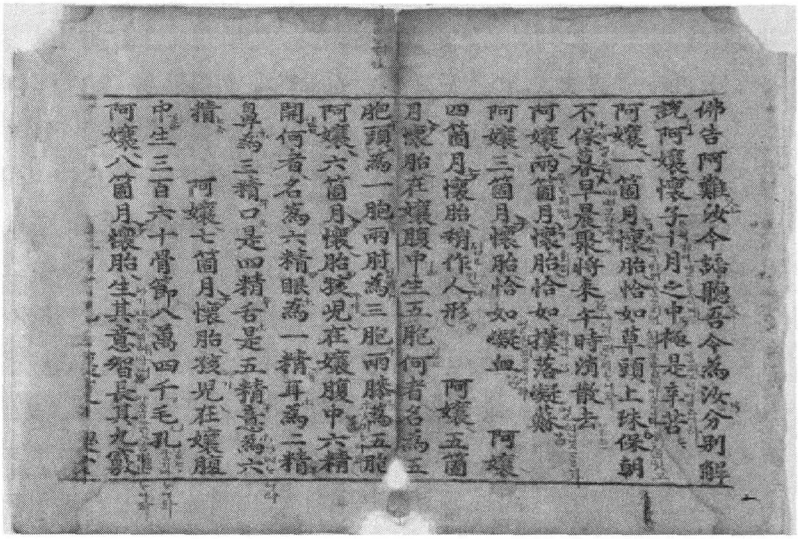
둘째, 釋讀口訣은 고대국어의 문법 현상을 풍부하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또, 어휘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석독구결에 사용된 어휘 자료 중에는 주로 부사와 동사 그리고 일부의 명사 등이 고대국어의 어휘 자료로 다루어질 수 있다. 釋讀口訣은 音韻史 연구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바, 음운사 연구에서 석독구결을 활용할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국어에 존재하는 음운론적인 이형태 등을 차자표기에서는 충분하게 표기에 다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차자표기 자료를 대상으로 하여 음운사를 연구할 경우에는 차자표기가 가지는 표기법상의 한계를 고려해야 한다.

셋째, 釋讀口訣은 鄕歌의 해독에도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 줄 수 있다. 釋讀口訣의 口訣字를 原字로 추정하여 다시 표기하면 鄕歌의 표기법과 類似하다. 釋讀口訣이 기입된 年代도 鄕歌의 기록 연대보다 앞서거나 비슷하다. 석독구결에 쓰인 어휘나 문법 형태들을 통하여 향가의 어휘와 문법을 어느 정도까지는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다. 실제로 석독구결에 반영되어 있는 어휘나 문법 형태들이 鄕歌에 사용된 문법 형태들과 같은 것이 많다. 鄕歌를 체계적으로 해독할 수 있는 비슷한 시기의 구체적인 언어 자료를 釋讀口訣을 통하여 더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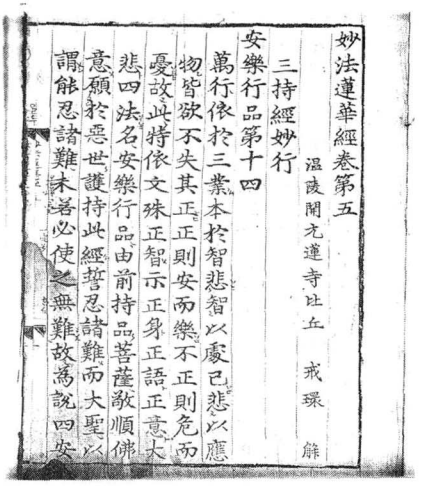
넷째, 釋讀口訣 자료는 고려 중기까지는 한문을 音讀口訣로 읽거나 해석하지 않고 漢文을 한국어의 어순으로 바꾸어서 訓讀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雄辯해 주고 있다. 이것은 동아시아의 漢文讀法史나 文字發展史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초기의 부호구결 자료들도 釋讀(訓讀)해야 하는 자료라는 점에서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

4.3. 한문을 釋讀하는(또는 訓讀으로 읽는) 이러한 전통은 13세기

末부터 본격적으로 쓰이기 시작하는 音讀口訣에 밀려 점차 그 자리를 잃게 된다. 1443년 訓民正音이 창제되고 한문 경전들을 諺解하기 시작하면서 번역문의 자격을 갖추었던 釋讀口訣이나 漢文을 訓讀하던 전통은 급속하게 사라지게 된 것이다. 한국의 漢文讀法史에서 일어난 큰 변화 과정은 공교롭게도 元(蒙古族)의 侵入과 高麗를 지배했던 時期와 일치하는 경향을 보인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다른 분야의 연구 성과들과 아울러 더 정밀하게 고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音讀口訣과 諺解文이 등장한 이후에도 漢文을 釋讀하던 전통은 부분적으로 남아 있었다. 그 사실을 몇 가지 남아 있는 자료들을 통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선 초기의 구결 자료 중에 고려 시대의 석독구결과는 약간 다른 종류의 석독구결도 존재한다. 15세기 중엽에 간행된 法華經 자료 중 다음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音讀口訣과 함께 부분적으로 釋讀口訣의 모습도 간직하고 있는 자료를 볼 수 있다.



<사진 20> 『父母恩重經』(1441년, 화암사판, 불갑사 소장본)


妙法蓮華經卷第五
溫陵開元蓮寺比丘 戒環 解
三持經妙行
安樂行品第十四
萬行依於三業本於智悲智以慶己悲以應
物皆欲不失其正正則安而樂不正則危而
憂故此特依文殊正智示正身正語正意大
悲四法名安樂行品由前持品菩薩敬順佛
意願於惡世護持此經智忍諸難而大聖以
謂能忍諸難未若必使之無難故爲說四安

<사진 21> 『法華經』卷5
(15세기 중반, 개인 소장본)

<사진 20>은 화암사판 『父母恩重經』(1441년, 불갑사 소장본)이다. 이 자료에는 音讀口訣이 주로 기입되어 있지만 부분적으로는 釋讀口訣의 흔적도 남아 있는 자료이다. <사진 21>의 15세기의 『법화경』도 부분적으로 석독의 흔적이 남아 있는 자료이다.

이 외에도 安秉禧(1976ㄱ)와 菅野裕臣(1986)과 藤本幸夫(1992, 1993) 등에서 한문을 訓讀한 朝鮮時代 資料들이 소개된 바 있다. 15세기 이후의 한문 訓讀 자료 중에는 奎章閣에 所藏된 가람 文庫本의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 1권(上一之二, 1465년, 乙酉字本)과 같은 活字本인 南豊鉉 先生 所藏의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下三之一·二) 등에 漢數字로 어순을 표시한 것과 합부표시 등이 나타난다. 藤本幸夫(1992, 1993)에서 자세하게 소개된 바 있는 小倉文庫本 중 『牧牛子修心訣』(1467년 刊經都監本)에는 朱墨에 의한 訓讀을 표시하는 符號들이 많이 적혀 있다고 한다. 언해 부분을 제외한 전체 한문 본문 중 35.3%에 달하는 부분에 훈독 표시가 되어 있는 자료다. 志部昭平氏 所藏의 法華經에도 양이 적긴 하지만 흥미 있는 훈독을 표시한 부분들이 소개된 바 있다. 이들 자료들에 나타나는 훈독 표시의 특징을 藤本幸夫(1993: 644)에서 다음과 같이 정리한 바 있다.

① 『牧牛子修心訣』 외에는 대개 施符部가 아주 드물다. 1% 이하이다.
② 訓讀符號에는 訓讀의 順序를 보이는 漢數字와 熟語를 표시하는 合

符 표시 부호가 있고, '·'보다 고차원의 訓讀順序를 표시하는 '。'와 '8' 부호 등이 있다. 漢數字는 一에서 九까지 사용되고, 또 四, 五, 六 등에 대해서는 橫線을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등을 겹친 것도 자의적으로 사용한다. 四와 五에 대해서는 '𝌆', '𝌇, 𝌈' 등도 쓰인다. 한 사람이 자의적으로 두 가지를 섞어 쓸 경우도 있다. '。' 부호는 安秉禧(1976ㄱ)가 소개한 가람 문고본에 나타나고, '8'은 志部氏本에 보인다.

③ 訓讀 符號는 原則的으로 본문의 右側에 적힌다. 하지만 좌측에 적히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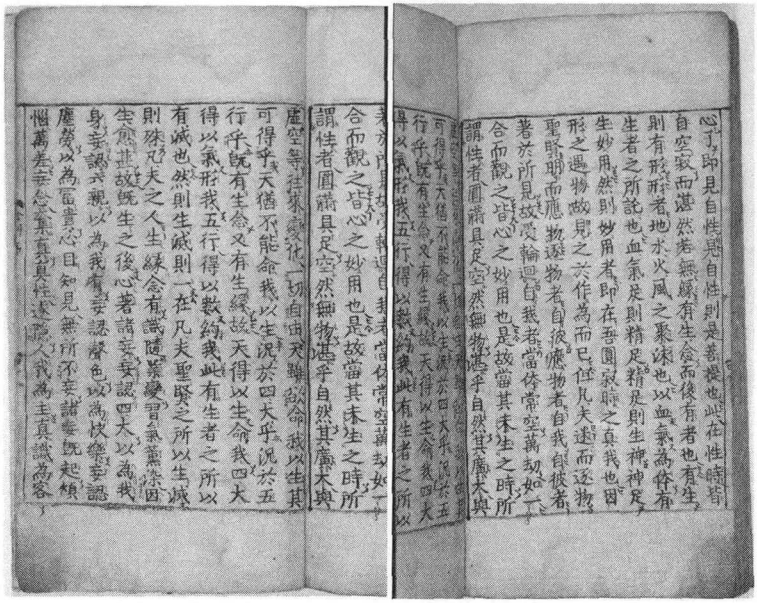
④ 訓讀 符號가 文章 全體에도 적힐 수 있지만 그런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은 句節單位에 많이 적힌다.

⑤ 合符 표시는 安秉禧(1976ㄱ)에서 소개된 자료에서는 熟語를 표시하고 訓讀 順序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그러나 『牧牛子修心訣』에서는 熟語임과 동시에 訓讀 順序 第一位인 경우를 나타내기도 한다.

17世紀 자료 중에도 藤本幸夫(1993)에서 소개된 바 있는 『大慧普覺禪師書』와 『大乘起信論疏』 등이 한문을 우리말로 釋讀한 자료이다. 전자는 東京大學 綜合圖書館 所藏本으로 17세기 木版本이고, 後者는 慶應義塾 圖書館 所藏本으로 17세기 중엽의 木版本이다. 이들 자료에는 漢數字에 의한 訓讀 순서 표시 외에 借字口訣과 한글로 본문의 우측과 좌측에 口訣을 기입하여 본문의 한자들을 훈독할 수 있도록 한 자료이다. 이런 자료들은 현재에도 많이 남아 있다.

4.4. <사진 22>는 앞에서도 언급한 바 있는 <사진 9>와 같은 것으로, 필자가 淸州 古印刷博物館에서 발굴한 고려시대의 『金剛經』인데, 이 자료에서도 우리말 語順으로 한문을 해석하는 順序를 표시하는 符號로 漢數字나, 點이나 짧은 橫線 등을 사용한 符號들을 확인할 수 있다. 一부터 九까지 순서를 나타내기 위해 點이나 짧은 橫線의 個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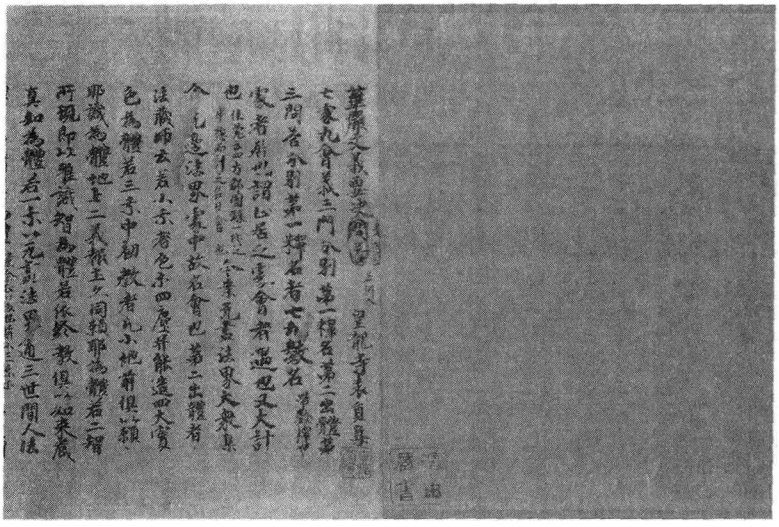
를 가지고 그 순서를 표시하고 있다. 이런 자료들과 연결될 수 있는 것이 東大寺 등에 所藏되어 있는 8세기나 9세기의 화엄경 계통의 자료에서도 나타난다는 사실이 흥미롭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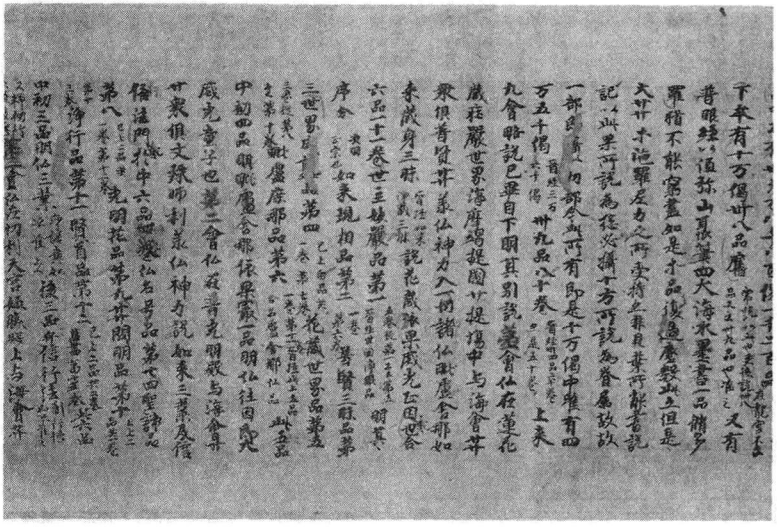
<사진 22> 『金剛般若波羅蜜經』(고려시대, 청주 고인쇄박물관 소장본)

<사진 2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자료에는 점이나 짧은 선으로 석독 순서를 표시하고 있다. 부호를 사용한 이런 석독 순서 표시가 六祖口訣後序 부분에만 집중적으로 기입되어 있다. 이 자료와, 앞에서도 언급한 바 있는 <사진 8>의 『續華嚴略疏刊定記』 卷第九(東大寺所藏本)에[14] 기입되어 있는 한문 석독 순서 표시와 비교해 보면 유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14) 이 자료는 日本 重要文化財로 지정된 奈良時代末 筆寫本으로 朱書校合朱訓讀点 등이 나타나는 자료이다. 東大寺의 기록에 의하면 全長이 五丈五寸五分五厘이고 紙數 卄八枚이다. 紙背紙가 있고 經軸新補이며, 卷首欠이다.



<사진 23> 佐藤本『華嚴文義要訣』의 卷首 부분



<사진 24> 佐藤本『華嚴文義要訣』

<사진 23>과 <사진 24>는 佐藤本『華嚴文義要訣』이다. 이 책은 新羅 皇龍寺 表員이 集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799년경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책에는 朱書로 漢文訓讀 語順 順序뿐 아니라 逆讀線과 合符線, 그리고 校正符號와 符號口訣 등이 다양하게 기록되어있다. 이 외에도 앞으로 일본에 남아 있는 나라 시대 사경들을 조사한다면 더 많은 새로운 자료들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제시한 자료들은 8세기말부터 조선시대 후반까지 숫자나 點이나 짧은 선의 個數에 의해 漢文 訓讀 順序를 표시한 방법이 같은 자료들이다. 漢文을 釋讀(또는 訓讀)한 전통은 한국에서는 7세기경부터 발달하기 시작하여 조선 시대 후반까지도 부분적으로는 남아 있었다. 이러한 韓國의 漢文 釋讀(訓讀)의 전통과 한국의 借字表記는 日本에 많은 영향을 미친 바 있다. 口訣의 발달도 문자 토를 사용하기 전에는 단순한 석독 순서 표시 등에서 출발하여 점토에 의한 부호구결과 문자 토를 기입한 석독구결 등으로 발전한 것이다. 이러한 구결의 발달은 吏讀의 발달과정과 흡사하다.

5. 音讀口訣

音讀口訣은[15] 漢文의 順序대로 音讀하되 漢文의 句讀에 해당하는 곳에 吐를 넣어 읽는 口訣이다. 音讀口訣은 대체로 13世紀末무렵부터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音讀口訣의 特徵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漢文의 語順을 바꾸지 않고 대개는 漢文의 句讀處에서 끊어 읽으면서 그 자리에 吐를 달아서 읽는다.

둘째, 漢文 原文의 漢字들은 반드시 韓國 漢字音으로 音讀한다.

15) 음독구결은 학자들에 따라서는 順讀口訣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셋째, 音讀口訣文에 기입되어 있는 吐들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漢文의 文章構造를 우리말 構造로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실제로 音讀口訣은 한문을 잘 이해하여 번역할 수 있어야만 정확하게 吐를 달 수 있는 구결이다. 音讀口訣만 가지고 그 문장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으려면 漢文에 대한 지식도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야 한다. 音讀口訣은 高麗時代 末부터 쓰이기 시작하여 한국의 한문 독법사에서 가장 일반적인 것으로 자리를 잡게 되고, 훈민정음 창제 이후 언해문이 일반화되면서 釋讀口訣과 符號口訣의 전통은 사라지게 된 것이다. 그러나 音讀口訣만은 諺解文과는 별도로 漢文 原文과 같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남아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는 것이다.

高麗末의 『梵網經』 口訣 資料를 통해 音讀口訣의 實例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此是佛行處ㅣㅌ/이니	聖主ㄷ/ㅅ	所稱歎ㅣㅌㅅ/이니라	我已隨順說	(啓明大本)
此是佛行處ㅣㅌ	聖主	所稱歎ㅣㅌㅅ	我已隨順說	(嚴仁燮 A本)
此是佛行處ㅣㅌ	聖主	所稱歎	我已隨順說	(嚴仁燮 B本)
此是佛行處ㅣㅌ	聖主ㄷ	所稱歎ㅣㅌㅅ	我已隨順說	(國立圖書館本)
此是佛行處ㅌ	聖主ㄷ	所稱歎ㅣㅌㅅ	我已隨順說ㅅ가/ᄒᆞ며	(精文硏本)

福德無量聚ㅅㅈ/ᄒᆞ야	廻以施衆生ㅅㅈㅌ/ᄒᆞ노니	共向一切智ㅁㅅ/고라		(啓明大本)
福德無量聚ㅅㅈㅌ/ᄒᆞ야니	廻以施衆生ㅅㅈㅌ	共向一切智ㅁㅅ		(嚴仁燮 A本)
福德無量聚ㅈㅌ/아니	廻以施衆生ㅅㅈㅌ	共向一切智		(嚴仁燮 B本)
福德無量聚ㅅㅈ	廻以施衆生ㅅㅈㅌ	共向一切智ㅁㅅ		(國立圖書館本)
福德無量聚ㅅㅈ	廻以施衆生ㅅㅈㅌ	共向一切智ㅁㅅ		(精文硏本)

願聞是法者ㄱ/ᄂᆞᆫ	疾得成佛道ㅣㅅㅣ/이어다[16]	(啓明大本)
願聞是法者ㄱ	疾得成佛道{ㅣㅅㅣ}ㅁㅅ	(嚴仁燮 A本)

16) 이 문장은 『梵網經菩薩戒』 46ab면에 있는 것으로 각각 "이것이 佛行處인데 성주가 칭찬하고 찬탄한 바다. 내가 이미 순서를 따라서(순서에 따라) 다 말했으며, 한량없는 복덕을 쌓아 중생에게 돌려줌으로써 베푸니 일체지를 함께 지향하기를 바란다"와 "원컨대 이 법을 듣는 자는 불도를 빨리 능히(얻어서) 이룰지어다(이루기를 바란다)" 정도로 해석될 수 있는 문장이다.

願聞是法者ㄱ　疾得成佛道ㅣ令ㅣ　(嚴仁燮 B本)
願聞是法者ㄱ　疾得成佛道ㅣ令ㅣ　(國立圖書館本)
願聞是法者ㄱ　疾得成佛道ㅣ오ㅣ　(精文硏本)

위에 제시된 音讀口訣은 같은 원문에 대한 다른 異本 자료들의 口訣을 비교하여 제시한 것이다. 吐가 한자의 略體字(半字) 등에 의거하여 만든 口訣文字로 기입되어 있다. 'ㅣㄷ(-이니)'는 계사 '이-'와 접속어미 '-니'가 통합한 것이다. '聖主ㅅ'의 '-ㅅ(-人)'은 속격조사를 표기한 것이다. 이와 같이 高麗時代와 朝鮮初期까지의 口訣 자료는 借字口訣字를 사용한 것이 거의 대부분이다. 訓民正音이 創製된 이후의 자료들에는 한글과 漢字의 原字를 그대로 사용한 것들도 있다. 3장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후기 符號口訣 중에는 音讀口訣의 성격을 띠는 것도 있다.

音讀口訣은 13世紀 후반부터 쓰이기 시작하여 최근까지도 한문 학습에서 사용되고 있다. 지금까지 발굴된 音讀口訣 자료는 그 수를 헤아리기가 힘들 정도이다. 여기서는 중요한 자료들 몇 가지만을 언급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우리가 발굴한 음독구결 자료 중에는 특히, 高麗末 朝鮮初期의 『楞嚴經』 口訣 자료들이 많다. 지금까지 필자가 확인한 것만 해도 高麗末 조선초기의 구결이 기입되어 있는 楞嚴經 자료는 20여 종에 이른다. 이 중 安東本 楞嚴經과[17] 南權熙本 楞嚴經이 『口訣資料集 一』(南豊鉉, 1995, 李丞宰, 1995ㄷ)로, 祇林寺本 楞嚴經은 『口訣資料集 二』(鄭在永, 1996ㄴ)로 송성문本 楞嚴經이 『口訣資料集 三』(朴盛鍾, 1996)으로 간행된 바 있다. 이들은 高麗末 朝鮮初期의 楞嚴經 구결 자료들 중 4가지 異本들을 모아서 影印하고, 각 자료에 나타난 구결의 특징을 검토한 것이다. 이 외에도 남경란(2000, 2001), 박진호(1996) 등이 이 시기의 楞嚴經 구결 자료를 연구한 것이다. 남

17) 이 자료는 현재는 南豊鉉 선생의 所藏本이다. 앞으로는 南豊鉉本으로 부르는 것이 좋을 것이다.

경란(2000, 2001)은 南權熙가 소장하고 있는 다른 여러 가지 『楞嚴經』 異本들의 音讀口訣을 연구한 것이다. 박진호(1996)는 奎章閣에 所藏되어 있는 楞嚴經 구결 자료 2 種에 대하여 논의한 것이다. 이 외에도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南明集』과 『直指心體要節』, 筆寫本 『蒙山法語略錄』, 『佛說四十二章經』, 『詳校正本慈悲道場懺法』, 『梵網經菩薩戒』, 『大方廣圓覺略疏注經』, 『永嘉證道歌』 등의 音讀口訣 자료들이 연구된 바 있다. 이들은 대체로 13世紀末에서 15世紀 한글 創製 以前까지의 言語를 보여주는 자료들로서 前期中世國語 연구에서는 중요한 자료들이다. 특히, 이 자료들은 釋讀口訣이 반영하고 있는 古代國語 文法과 15세기 이후의 中世國語 文法을 연결시켜주는 자료로서 가치를 가진다. 그리고 이 자료들을 통하여 口訣의 時代的인 變化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16세기 이후의 구결 자료들에 대해서는 安秉禧(1977)에서 체계적으로 검토된 바 있다. 安秉禧(1977)는 佛經 구결 자료뿐만 아니라 儒敎經書의 口訣 자료도 검토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박희숙(1976ㄱ)의 '禮記 口訣考'와 安秉禧(1976ㄷ)의 '童蒙先習과 그 口訣', 최범훈(1982)의 '書釋의 特殊口訣에 대하여', 金斗燦(1985)의 『詩正文』의 구결, 鄭在永(1998ㄹ)의 『童子習(口訣)』 등도 불경 자료 이외의 口訣 자료를 다룬 것이다.

6. 口訣文字의 文字論的 意義와 性格

10세기부터 본격적으로 쓰이기 시작한 韓國의 口訣文字는 기본적으로 漢字를 차용하여 韓國語의 音을 표시하기 위해 만든 音節文字이다. 이것은 단순하게 漢字文化圈에서 널리 통용되어 온 譯義表記와 譯音表記와도 차이를 보인다. 口訣文字는 世宗大王이 만든 訓民正音

(1443年 冬, Hangeul)과는 달리 오랜 기간 동안에 점진적으로 변화 발전된 문자라고 할 수 있다. 口訣文字는 한국의 借字表記法의 傳統에서 출발하여 오랜 기간 동안 점진적으로 변화 발전하면서 만들어진 문자 체계를 가진 韓國의 새로운 文字이다. 口訣文字는 日本의 片假名(가타카나)나 平假名(히라가나)와 같이 漢字의 略體字(半字) 등을 이용하여 만든 문자이다. 西田龍雄(1997: 162)은 漢字系統에 속하는 문자들을 다음과 같이 분류한 바 있다.

① 漢字
② 派生漢字 : 漢字의 部首를 그대로 사용하여 任意의 結合으로 만든 文字. 壯文字(티베트), 字喃, 白文(白族) 등이 이 부류에 포함된다.
③ 漢字變形 : 漢字의 字形에 變化를 준 文字. 假名(日本), 女書(日本).
④ 疑似漢字 : 漢字와 비슷한 獨自的인 部首와 結合하여 創造한 文字. 契丹, 女眞, 西夏 등의 文字.

西田龍雄의 분류에는 우리의 口訣文字가 포함되지 않았지만 만일 분류를 한다면 일본의 假名과 함께 漢字變形 文字類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宋基中(1997/2003: 57-58)은 高麗時代 佛經 資料에 보이는 口訣字들과 日本의 假名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① 漢文語 文章에 附記하여 統辭 構造를 部分的으로 國語化하는 기능을 하는 점
② 多數 字形들이 한자의 略體字라는 점
③ 대개 조사나 어미를 표기하는 문자라는 점

등에서 공통적이고 이러한 세 가지 특징을 구비한 '한자계 문자'는 달리 없는 듯하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구결문자와 일본의 片假名(가타카나)는 그것만으로는 완전한 문장을 표기하지 않은, 한자의 '補助文字'였던 점에서 공통적이었다."라고 하여 口訣字의 특징을 漢文語의 통사구조를 부분적으로 국어화하여 이해에 도움을 주는 補助的인 文字로 파악한 바 있다. 이 설명은 13세기 말부터 쓰이기 시작한 音讀口訣만을 생각하면 옳은 설명이다. 실제로 조선시대에 와서는 音讀口訣이 일반화되면서 口訣에 대한 槪念도 바뀌게 되었다. 口訣을 '입겾' 정도로 번역하고 우리말의 吐를 나타내는 정도로 口訣의 개념이 축소된 것 또한 사실이다. 위의 설명 중 ①과 ③은 실제로 音讀口訣에만 해당하는 설명이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口訣文字는 音讀口訣이 쓰이기 전부터 이미 사용되고 있었다. 따라서 위의 설명은 어느 정도 수정 보완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高麗時代의 釋讀口訣 資料에 나타난 口訣字의 文字體系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추정음	華疏	華嚴	舊譯	金光	瑜伽	原字推定
(1)	ㄱ/기	ㅅ	ㅅ	ㅅ	ㅅ	ㅅ	只
(2)	거	厶	厶	厶	厶	厶	去
(3)	겨	𠂇	𠂇	𠂇	𠂇	𠂇	在
(4)	고	口	口	口	口	口	古
(5)	과	人	人	人	人	人	果
(6)	곰	尒	尒	尒	尒	尒	爾
(7)	곧		𠂤	𠂤			這
(8)	ㄴ/온	冖	冖	冖	冖	冖	隱
(9)	나	乃	乃	乃	乃	乃	那
(10)	노	乂	乂	乂	乂	乂	奴

(11)	누	ㅏ	ㅏ	ㅏ	ㅏ	ㅏ	臥
(12)	니	ㅣ	ㅣ			ㅣ	尼
(13)	닉	ㅢ	ㅢ	ㅢ	ㅢ	ㅢ	飛
(14)	놀		斤			斤	斤
(15)	다	ㅣ	ㅣ	ㅣ	ㅣ	ㅣ	多?
(16)	뎌	丁	丁	丁	丁	丁	丁
(17)	뎌	彳	彳	彳	彳		彼
(18)	뎨			岑			第
(19)	도	刀	刀	刀	刀	刀	刀
(20)	두	斗	斗	斗	斗	斗	斗
(21)	디	矢	矢	矢	矢	矢	知
(22)	딕	入	の/入	の	入	入	入
(23)	돌	冬	冬	冬	冬	冬	冬
(24)	뎌	ム	ム/矣	ム	ム	ム	矣
(25)	-을	し	し	し	し	し	乙
(26)	-읋	尸	尸	尸	尸	尸	力?
(27)	라	罒	罒	罒	罒	罒	羅
(28)	로	罒	罒	罒	罒	罒	以
(29)	리	令	令	令	令	令	令
(30)	리	禾	禾	禾	禾	禾	利
(31)	려				呂		呂
(32)	ㅁ/음	亠	亠	亠	亠	亠/立	音
(33)	마	𠂉	𠂉	𠂉	𠂉	𠂉	𠂉
(34)	며	分	分	分	分	分	彌
(35)	모			毛			毛
(36)	믈	勿					勿
(37)	ㅂ/읍	邑				邑	邑
(38)	ㅸ/브	火	火	火	火		火
(39)	ㅅ	七	七	七	七	七	叱

(40) 사						沙
(41) 삼	三					三
(42) 셔	立	立				立
(43) 시						賜
(44) 시						示
(45) 숣	白	白	白	白	白	白
(46) 아						良
(47) 야						也
(48) 여						亦
(49) 여						與
(50) 예						
(51) 오						乎
(52) 오(호)				()		乎
(53) 오	五					五
(54) 우(리)	又					又
(55) 우(리)						
(56) 의						衣
(57) 이						是
(58) 져						齊
(59) 하	下	下	下	下	下	下
(60) 호(오)						乎
(61) 히						兮
(62) ᄒᆞ						爲
(63) ᄒᆞᆫ?						一
(64) 히(ᄒᆞ이)						令
(65) 긔	十	十	十	十	十	中
(66)						止
(67)						
(68)	支	支		支	支	

(69)	子	子	子		子?
(70)	弋				弋?
(71)			巴		
(72)	甲				甲

口訣에 사용되는 口訣文字는 借字表記의 전통에 의거하여 만들어진 새로운 문자이다. 즉, 漢字의 略體字나 필획이 단순한 草書體 등에 의거하여 만든 우리의 독창적인 음절문자이다. 이 口訣字가 정확하게 언제 만들어져 언제부터 사용되었는지는 자료의 부족으로 알 수 없지만 고려시대 이전부터 부분적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百濟 時代의 文字 資料나 新羅 時代의 吏讀 자료에도 간혹 한자의 略體字(또는 半字)가 보인다. 일반적으로 口訣文字는 우리가 많이 사용해 왔던 漢字에서 특히, 借字表記에서 많이 써 왔던 글자를 바탕으로 하여 만든 문자다. <표 1>에서 보는 것처럼 口訣文字도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口訣文字는 漢字의 머리 부분이나 밑 부분, 한자 左右의 일부분 또는 筆劃이 단순한 草書體에 의거하여 만든 것이다. 간혹 한자의 正字를 그대로 사용한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口訣文字의 체계에서 보면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다. 口訣文字의 文字體系는 일반적으로는 音節文字의 성격을 띤다. 口訣字가 부분적으로 音素 단위를 표기하는 경우도 있는바, 이들은 주로 末音添記에 사용된 구결문자이다. 口訣文字는 기본적으로 모두 다 音假字이거나 訓假字이다. 한국의 借字表記法에서 독창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末音添記法은 다른 漢字文化圈에서 발생한 음절이나 單位音을 표시하는 방법과도 다른 것인데, 釋讀口訣이나 符號口訣에서도 末音添記法을 쓰고 있다. 口訣에 나타나는 末音添記法도 대개는 그 單語나 그 語節의 마지막 終聲音을 반영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는 口訣文字가 부분적으로는 音素的 표기의 萌芽를 보인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訓民正音도 이러한 한국의 文字 發達史의 전통 위에서 創製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 동안 口訣文字를 文字發達史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字劃의 단순화 과정으로만 이해하거나 설명해 온 것은 잘못이다.

日本의 假名도 口訣文字와 같은 범주에 속하는 문자이다. 실제로 한국의 口訣文字와 일본의 假名은 여러 면에서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 文字發達史에서 구체적인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

첫째, 口訣文字나 日本의 假名은, 기본적으로는 借字表記法에서 많이 쓰이던 漢字의 略體字(半字)나 筆劃이 간단한 草書體 등에 의거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둘째, 字形과 字音이 同一한 것도 많은 편이다. 물론, 字形은 같은데 字音이 다른 것도 있다.[18]

셋째, 口訣文字와 假名은 文語인 漢文을 各自의 言語로 解釋하고 飜譯하는 과정에서 漸進的으로 발생하여 발전한 것이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 兩國은 漢字를 차용하여 자국어를 표기한 借字表記法에서도 공통적인 발전 단계를 보인다.

넷째, 처음부터 口訣文字와 假名은 漢字나 漢文과 함께 표기하는 방법으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韓國과 日本에서는 한 文章 안에 漢字와 自國文字를 포함한 여러 가지 문자를 섞어서 문장을 표현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된 것이다.[19]

---

18) 이 문제에 대해서는 Ishizuka(1997)를 참조할 수 있다.

19) 한 문장을 표현하면서 여러 가지 문자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방식은 宋基中(1997)에서도 지적된 바 있듯이 세계적으로도 극히 드문 현상이라고 한다.

참고문헌

고영근(1998), 「석독구결의 국어사적 가치」, 『口訣硏究』 제3집, 1-28.

高正儀(2004), 「口訣 硏究의 現況과 課題」, 『口訣硏究』 第12輯, 5-46.

口訣學會編(1997), 『아시아 諸民族의 文字』, 태학사.

국립국어연구원편(1998), 『국어의 시대별 변천 연구 3(고대국어)』, 국립국어연구원.

國語史硏究會編(1993), 『國語史 자료와 國語學의 연구』, 문학과 지성사.

권용경(2000), 「석독구결의 '-ㅌ(ㅅ)'에 대하여」, 『형태론』 2권2호, 307-322.

김동소(1998), 『한국어 변천사』, 형설출판사.

金斗燦(1985), 「『詩正文』의 구결에 대하여」, 『어문연구』 48, 470-485.

金斗燦(1986), 「口訣語尾 '-羅叱多(랏다)'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96.

金斗燦(1987ㄱ), 「고려판 『남명집』의 구결 연구」, 단국대 박사학위논문.

金斗燦(1987ㄴ), 「『직지심체요절』의 口訣에 대하여」, 『國語學』 16, 125-149.

金斗燦(1989ㄱ), 「필사본 『몽산법어약록』의 구결에 대하여」, 『국문학논집』 13, 단국대 국문과, 393-427.

金斗燦(1989ㄴ), 「『佛說四十二章經』의 口訣에 대하여」, 『國語學』 18, 64-88.

金斗燦(1990), 『中世語 資料 『詩釋』의 借字表記에 대하여」, 『동양학』 20집, 71-93.

金斗燦(1996), 「口訣語尾 'ㅅ가ᄒᆞ'에 대하여」, 『口訣硏究』 제1집, 45-72.

金斗燦(1997), 「舊譯仁王經 口訣 解讀 試攷」, 『口訣硏究』 제2집, 161-242.

金斗燦(2000), 「『華嚴經十四』의 구결 기능체계」, 『口訣硏究』 제6집, 343-449.

김무림(1999), 「高麗時代 口訣 漢字音의 硏究」, 『口訣硏究』 제5집, 75-108.

김문웅(1986), 『十五世紀 諺解書의 口訣 硏究』, 형설출판사.

김문웅(1993), 「한글 구결의 변천에 관한 연구」, 『한글』 219.

김문웅(1993), 「구결법의 변천」, 『국어사와 차자표기』, 태학사, 429-454.

김상대(1985), 『中世國語 口訣文의 國語學的 硏究』, 한신문화사.

金永萬(1986), 「舊譯仁王經의 釋讀表記 小考」, 『國語學新硏究』(金敏洙敎授華甲紀念), 탑출판사, 58-69.

金永萬(1997), 「석독구결 '皆ㄷ', '悉ᄀᆞᆮ'와 고려 향찰 '頓部叱', '盡良'의 비교 고찰」, 『口訣硏究』 제2집, 1-26.

金永萬(2000), 「『瑜伽師地論』의 "由ᄀᆞᆫ-"와 "如ᄃᆞᆫ-"의 讀法에 대하여」, 『口訣硏究』

第6輯, 41-60.
金永旭(1996), 「선어말어미 '-거/어-'의 교체 양상에 대하여 -기림사본 능엄경을 중심으로-」, 『한글』 233, 69-104.
金永旭(1997), 「14세기 문법 형태 '-ᄒᆞ/ᄂᆞ[의/ㅅ]'의 교체에 대하여」, 『口訣硏究』 제2집, 243-264.
金永旭(1999ㄱ), 「舊譯仁王經 口訣의 시상과 서법 선어말어미」, 『口訣硏究』 제5집, 147-164.
金永旭(1999ㄴ), 「전기중세국어의 시상과 서법」, 『先淸語文』 27, 719-751.
金永旭(2001ㄱ), 「『유가사지론』 점토(點吐)의 해독 방법 연구」, 『口訣硏究』 제7집, 57-77.
金永旭(2001ㄴ), 「『瑜伽師地論』 雙點吐의 解讀 方法 硏究」, 『제2회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집』, 口訣學會, 215-229.
金永旭(2002), 「11세기의 문법형태를 찾아서」, 『문법과 텍스트』, 서울대출판부, 157-172.
金永旭(2003), 「佐藤本 『華嚴文義要訣』의 國語學的 硏究」, 『口訣硏究』 제10집, 47-78.
김주원(1997), 「『緇門經訓』(石崙菴本)의 기입토에 나타난 16세기 경상도 방언」, 『口訣硏究』 제2집, 265-290.
남경란(1997), 「고려본 『능엄경』 입겾과 'ㅣ'형 종결법 연구」,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남경란(2000), 「남권희 (나)본 『능엄경』의 입겾 연구」, 『口訣硏究』 제6집, 87-134.
남경란(2001ㄱ), 「『능엄경』의 음독 입겾 연구」, 대구카톨릭대 박사논문.
남경란(2001ㄴ), 「『佛說四十二章經』입겾의 이본에 대하여」, 『어문학』 75, 한국어문학회, 143-169.
남경란(2001ㄷ), 「음독 입겾의 몇 가지 자형」, 『민족문화논총』 23,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39-174.
남경란(2002ㄱ), 「『大方廣佛華嚴經疏(권35)』 석독구결에 나타난 독음 고찰 -'-ㄹ' '-ㄴ'을 중심으로-, 『민족문화논총』 26,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59-283.
남경란(2002ㄴ), 「『법화경』 이본의 입겾(구결) 연구」, 『언어과학연구』 21, 언어과학회, 89-110.

남경란(2002ㄷ), 「麗末鮮初에 간행된 새로운 입겾 자료에 대하여」, 『국어사 자료 연구』 3, 31-54.
남경란(2003), 「『대방광불화엄경소』권35 입겾 연구」, 『배달말』 32, 1-24.
南權熙(1993ㄱ), 「高麗本 大方廣佛華嚴經 卷第十四와 그 口訣資料」, 1993년 여름 구결학회 공동연구회 구두 발표.
南權熙(1993ㄴ), 「高麗本 慈悲道場懺法 卷第一~五와 그 口訣 紹介」, 『書誌學報』 11, 韓國書誌學會, 5-36.
南權熙(1994ㄱ), 「高麗本 大方廣佛華嚴經疏 卷35의 書誌學的 考察」, 1994년 여름 구결학회 공동연구회 구두 발표.
南權熙(1994ㄴ), 「高麗 釋讀口訣 資料 金光明經 卷三의 紹介」, 1994년 11월 구결학회 월례 강독회.
南權熙(1996), 「高麗 口訣資料 大方廣佛華嚴經 卷第十四의 書誌的 分析」, 『口訣硏究』 제1집, 377-403.
南權熙(1997), 「차자표기 자료의 서지」, 『새국어생활』 7-4, 국립국어연구원, 147-194.
南權熙(1999) 「조선 중기부터 구한말까지의 구결 자료에 관한 서지학적 연구」, 『서지학연구』 18, 445-508.
南權熙(2002), 『高麗時代 記錄文化 硏究』, 淸州古印刷博物館.
남미정(1998), 「접속어미 '-거든'의 통시적 연구」,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南豊鉉(1976), 「國語 否定法의 發達」, 『문법연구』 3, 55-82.
南豊鉉(1977ㄱ), 「국어 처격조사의 발달」, 『이숭녕선생 고희기념 국어국문학 논총』, 탑출판사, 69-94.
南豊鉉(1977ㄴ), 「鄕歌와 舊譯仁王經 口訣의 '之叱'에 대하여」, 『언어』 2-1, 56-66.
南豊鉉(1980ㄱ), 「口訣과 吐」, 『國語學』 9, 151-161.
南豊鉉(1980ㄴ), 「漢文·漢字의 受用과 借字表記法의 發達」, 『韓國 古代文化와 隣接文化와의 關係』(보고논총18-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81-205.
南豊鉉(1985), 「舊譯仁王經 釋讀口訣의 年代」, 『東洋學』 15, 19-40.
南豊鉉(1986), 「舊譯仁王經의 口訣에 대하여」, 『國語學新硏究』, 탑출판사, 49-57.
南豊鉉(1987), 「중세국어의 과거시제어미 '-드-'에 대하여」, 『國語學』 16, 55-63.
南豊鉉(1988), 「釋讀口訣의 起源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100, 233-242.
南豊鉉(1990ㄱ), 「吏讀·口訣」, 『國語硏究 어디까지 왔나』, 동아출판사, 594-604.
南豊鉉(1990ㄴ), 「高麗末·朝鮮初期의 口訣 硏究」, 『震檀學報』 69, 75-101.

南豊鉉(1990ㄷ), 「吏讀·口訣」, 『國語硏究 어디까지 왔나』, 594-604.
南豊鉉(1991ㄱ), 「高麗時代 口訣의 一·二 問題」, 『어문연구』 70·71 합병호, 261-264.
南豊鉉(1991ㄴ), 「高麗時代의 言語와 文字生活」, 『韓國思想史』 권3, 韓國精神文化硏究院, 488-548.
南豊鉉(1993), 「高麗本 瑜伽師地論의 釋讀口訣에 대하여」, 『東方學志』 81, 115-181.
南豊鉉(1995), 「朴東燮本 능엄경의 解題」, 『口訣資料集 一』, 한국정신문화연구원.
南豊鉉(1996ㄱ), 「高麗時代 釋讀口訣의 'ㅁ/ㄹ'에 대한 考察」, 『口訣硏究』 제1집, 태학사, 3-10.
南豊鉉(1996ㄴ), 「『金光明經』 卷三 釋讀口訣에 나타난 ㅁ의 用法에 대하여」, 『李基文敎授 停年退任紀念論叢』, 신구문화사, 228-251.
南豊鉉(1996ㄷ), 「高麗時代 釋讀口訣의 動名詞語尾 '-ㄱ/ㄴ'에 대한 考察」, 『國語學』 28, 1-48.
南豊鉉(1997ㄱ), 「借字表記法과 그 資料」, 『國語史硏究』, 태학사, 65-95.
南豊鉉(1997ㄴ), 「한국에 있어서의 구결연구의 회고와 전망」, 『訓点語と訓点資料』 100.
南豊鉉(1998), 「瑜伽師地論(卷20) 釋讀口訣의 表記法과 한글 轉寫」, 『口訣硏究』 3, 253-336.
南豊鉉(1999ㄱ), 「古代國語의 文法 形態」, 『第3次 環太平洋 韓國學 國際會議 한국학논총』, 한국문화사, 39-58.
南豊鉉(1999ㄴ), 『國語史를 위한 口訣 硏究』, 태학사.
南豊鉉(1999ㄷ), 『瑜伽師地論』 釋讀口訣의 硏究, 태학사.
南豊鉉(2000ㄱ), 「條件法 連結語尾 '-면'의 發達」, 『口訣硏究』 제6집, 11-40.
南豊鉉(2000ㄴ), 「高麗時代의 點吐口訣에 대하여」, 『書誌學報』 24, 韓國書誌學會, 5-45.
南豊鉉(2001ㄱ), 「口訣의 種類와 그 發達」, 일본 북해도대학 워크샵 발표논문집, 11-20.
南豊鉉(2001ㄴ), 「高麗時代 點吐釋讀口訣の種類とその讀法について」, 朝鮮學會(일본 천리대학) 공개강연 원고.
南豊鉉(2001ㄷ), 「韓國古代語의 單母音化에 대하여」, 『梅田博之敎授古稀記念

韓日語文學論叢』, 태학사, 429-445.
南豊鉉(2002), 「新羅時代 口訣의 再構를 위하여」, 『口訣硏究』 제8집, 77-93.
南豊鉉(2003ㄱ), 「新羅僧 順憬과 憬興의 法華經 註釋書에 대하여」, 『口訣硏究』 제10집, 31-46.
南豊鉉(2003ㄴ), 「古代國語의 時代 區分」, 『口訣硏究』 제11집, 1-22.
南豊鉉・李丞宰・尹幸舜(2001), 「韓國의 點吐口訣에 대하여」, 『訓點語と訓點資料』 107, 東京, 訓點學會, 69-102.
南豊鉉・심재기(1976), 「舊譯仁王經의 口訣硏究(其一)」, 『東洋學』 6, 1-68.
류탁일(1977), 「鮮初文獻에 쓰여진 佛家口訣」, 『荷西김종우박사 화갑기념논문집』 [『韓國文獻學硏究』(아세아문화사, 1989)에 재수록)], 68-89.
박부자(2000ㄱ), 「14・15세기 국어의 선어말어미 통합순서에 대한 연구」, 韓國精神文化硏究院 碩士學位論文.
박부자(2000ㄴ), 「정문연본 『永嘉證道歌』의 구결에 대하여」, 『口訣硏究』 제6집, 135-172.
朴盛鍾(1996), 「송성문本 楞嚴經 解題」, 『口訣資料集 三』, 韓國精神文化硏究院.
朴盛鍾(1999), 「舊譯仁王經 口訣의 語彙」, 『口訣硏究』 제5집, 201-220.
박진호(1996), 「奎章閣 所藏 口訣資料 楞嚴經 2種에 대하여」, 『口訣硏究』 제1집, 태학사, 73-94.
박진호(1997), 「借字表記 資料에 대한 통사론적 검토」, 『새국어생활』 7-4, 국립국어연구원, 117-145.
박진호(1998ㄱ), 「舊譯仁王經 口訣의 構文論的 양상」, 『口訣硏究』 제5집, 189-200.
박진호(1998ㄴ), 「고대국어 문법」, 『국어의 시대별 변천 연구』 3, 국립국어연구원, 121-205.
박진호(2003), 「周本 『華嚴經』 卷第36 點吐口訣의 解讀 -字吐口訣과의 對應을 中心으로 -」, 『口訣硏究』 제11집, 211-248.
박희숙(1976ㄱ), 「禮記 口訣考」, 『論文集』 4, 관동대학교, 47-63.
박희숙(1976ㄴ), 「佛典의 口訣에 대하여」, 『先靑語文』 7, 김형규교수정년퇴임기념논문집, 191-200.
박희숙(1978), 「南明泉和尙頌證道歌에 보이는 口訣」, 『論文集』 8, 관동대학교, 53-67.
백두현(1993), 「高麗本 華嚴經의 口訣字 支와 矢 - 그 讀音과 문법 기능」, 『어

문론총』 27호, 경북어문학회, 125-153.
백두현(1995), 「高麗時代 釋讀口訣의 경어법 선어말어미 '-ㅭ-', '-ㅱ-'의 분포와 기능에 관한 연구」, 『어문론총』 29, 경북어문학회, 45-70.
백두현(1996), 「고려 시대 釋讀口訣의 선어말어미 '-ㅱ(오)-'의 분포와 문법 기능」, 『어문론총』 30호, 경북어문학회, 93-136.
백두현(1997ㄱ), 「高麗時代 釋讀口訣의 선어말어미 '-ㅱ(오)-'에 대한 통사적 고찰」, 『진단학보』 83호, 235-272.
백두현(1997ㄴ), 「高麗時代 口訣의 文字體系와 通時的 變遷」, 『아시아 諸民族의 文字』, 태학사, 287-384.
백두현(1997ㄷ), 「高麗本 『金光明經』에 나타난 特異 형태에 대하여, '-ㅁㅁㄷ', 'ㅢㅂ', '言ㅱㄷ戶' 및 '言ㅢㄷ戶'」, 『국어학 연구의 새 지평』(성재 이돈주 선생 화갑기념), 태학사, 121-137.
백두현(1997ㄹ), 「高麗 時代 釋讀口訣에 나타난 선어말어미의 계열관계와 통합관계」, 『口訣硏究』 제2집, 27-95.
백두현(1999), 「구결 형태 '-ㅁㅁㄷ'(-고 곳)의 기능에 대한 고찰」, 『형태론』 1권 2호, 205-226.
서민욱(2001), 「'者'字의 부호구결에 대하여」, 『口訣硏究』 제7집, 口訣學會, 167-197.
宋基中(1997), 「借字表記의 文字論的 성격」, 『새국어생활』 7-4, 5-29.
宋基中・李賢熙・鄭在永・장윤희・한재영・황문환 編(2003), 『한국의 문자와 문자 연구』, 집문당.
沈在箕(1975ㄱ), 「口訣의 生成 및 變遷에 대하여」, 『韓國學報』 1, 일지사, 2-22.
沈在箕(1975ㄴ), 「舊譯仁王經 上 口訣에 대하여」, 『美術資料』 18, 19-35.
沈在箕(1976), 「長谷寺 法華經의 口訣」, 『美術資料』 19, 40-50.
沈在箕(1997), 「高麗時代 釋讀口訣의 讀法」, 『아시아 諸民族의 文字』, 태학사.
安秉禧(1975), 「口訣의 硏究를 위하여」, 『동양학학술회의논문집』, 성균관대학교, 133-142.
安秉禧(1976ㄱ), 「口訣과 漢文訓讀에 대하여」, 『진단학보』 41, 143-162.
安秉禧(1976ㄴ), 「中世語의 口訣記寫資料에 대하여」, 『奎章閣』 1, 51-65.
安秉禧(1976ㄷ), 「童蒙先習과 그 口訣」, 『김형규교수정년퇴임기념논문집』, 269-277.
安秉禧(1977), 『中世國語 口訣의 硏究』, 일지사.
安秉禧(1985), 「韓國語 借字表記法의 形成과 特徵」, 『제3회국제학술회의논문집』,

한국정신문화연구원, 621-640.
安秉禧(1987ㄱ), 「均如의 方言本 著述에 대하여」, 『國語學』 16, 41-54.
安秉禧(1987ㄴ), 『어학편, 韓國學 기초 자료 선집, 고대편』, 한국정신문화 연구원, 991-1079.
安秉禧(1992ㄱ), 『國語史 硏究』, 문학과 지성사.
安秉禧(1992ㄴ), 『國語史 資料 硏究』, 문학과 지성사.
여찬영(1983), 「번역소학의 구결문」, 『국문학연구』 7집, 효성여대, 15-34.
여찬영(1988), 「조선조 구결문과 언해문의 성격연구」, 『국문학연구』 11, 27-65.
尹幸舜(1999), 「韓·日의 漢文讀法에 대한 비교」, 『口訣硏究』 제5집, 33-58.
尹幸舜(2003), 「漢文讀法에 쓰여진 韓國의 角筆符號口訣과 日本의 오코토點의 비교 -『瑜伽師地論』의 點吐口訣과 文字口訣을 중심으로 -」, 『口訣硏究』 제10집, 79-114.
이건식(1995), 「鄕札과 釋讀口訣의 訓讀末音添記에 대하여」, 『國語史와 借字表記』, 태학사, 133-160.
이건식(1996ㄱ), 「컴퓨터 입출력을 위한 口訣字의 코드체계에 대한 試論」, 『口訣硏究』 제1집, 235-266.
이건식(1996ㄴ), 「高麗時代 釋讀口訣의 助詞에 대한 硏究」,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건식(1997), 「釋讀口訣의 省略表記와 難解吐의 解讀」, 『國語史硏究』, 태학사, 1055-1090.
이금영(2000ㄱ), 「선어말어미 '-거/어-'의 통시적 연구」,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금영(2000ㄴ), 「구결자 '-ㅏ-', '-ㅿ/ㅈ-'의 분포와 기능에 대하여」, 口訣學會 제22회 공동연구회 발표문.
이동림(1982), 「舊譯仁王經의 口訣 解讀을 위하여」, 『論文集』 21, 동국대학교, 137-186.
이병기(1998), 「선어말어미 '-리-'의 기원」, 『口訣硏究』 제4집, 1-22.
李崇寧(1961), 「'-샷다'考」, 『진단학보』 22, 77-102.
李丞宰(1989), 「借字表記 硏究와 訓民正音의 文字論的 硏究에 대하여」, 『國語學』 19, 203-239.
李丞宰(1990), 「高麗時代 『梵網經』의 口訣」, 『애산학보』 9, 117-147.

李丞宰(1991), 「鄕歌의 '遣只賜'와 舊譯仁王經 口訣의 'ㅁㅏㄴ'에 대하여」, 『국어학의 새로운 인식과 전개』, 민음사, 438-456.
李丞宰(1993ㄱ), 「麗末鮮初의 口訣資料」, 『國語史資料와 國語學의 硏究』, 문학과지성사, 56-76.
李丞宰(1993ㄴ), 「高麗本 『華嚴經』의 口訣字에 대하여」, 『國語學』 26, 국어학회, 325-380.
李丞宰(1994), 「高麗中期 口訣資料의 形態音素論的 硏究」, 『진단학보』 78, 317-326.
李丞宰(1995ㄱ), 「動名詞 語尾의 歷史的 變化」, 『國語史와 借字表記』, 태학사, 215-252.
李丞宰(1995ㄴ), 「借字表記 硏究의 成果와 課題」, 『광복50년의 국학, 성과와 전망』, 한국정신문화연구원, 337-366.
李丞宰(1995ㄷ), 「南權熙本 楞嚴經의 解題」, 『口訣資料集 一』, 韓國精神文化硏究院.
李丞宰(1995ㄹ), 「華嚴經 口訣의 狀態動詞 語幹」, 『韓日語學論叢』, 국학자료원, 495-522.
李丞宰(1996ㄱ), 「'ㄱ' 약화·탈락의 통시적 고찰」, 『國語學』 제28집, 49-79.
李丞宰(1996ㄴ), 「高麗中期 口訣資料의 主體敬語法 先語末語尾 '-ㅏ(겨)-'」, 『이기문선생정년기념 논총』, 신구문화사, 517-556.
李丞宰(1997ㄱ), 「吏讀와 口訣」, 『새국어생활』 7-2, 국립국어연구원, 135-144.
李丞宰(1997ㄴ), 「借字表記의 變化」, 『國語史硏究』, 태학사, 211-246.
李丞宰(1998), 「고대 국어 형태」, 『국어의 시대별 변천 연구』 3, 국립국어연구원, 41-75.
李丞宰(2000), 「새로 발견된 각필 부호구결과 그 의의」, 『새국어생활』 10-3, 국립국어연구원, 135-152.
李丞宰(2001ㄱ), 「周本 華嚴經 卷第22의 角筆 符號口訣에 대하여」, 『口訣硏究』 제7집, 1-32.
李丞宰(2001ㄴ), 「瑜伽師地論 角筆 符號口訣의 解讀을 위하여」, 『국어연구의 이론과 실제』(李珖鎬先生 回甲紀念論叢), 229-250.
李丞宰(2001ㄷ), 「符號字의 文字論的 意義」, 『國語學』 38, 국어학회, 89-116.
李丞宰(2002ㄱ), 「구결자료의 '-ㄱ-' 약화·탈락을 찾아서」, 『한국문화』 30, 서울

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1-30.
李丞宰(2002ㄴ), 「부호의 자형과 제작 원리」, 『문법과 텍스트』, 서울대출판부, 61-78.
李丞宰(2003), 「각필 符點口訣의 의의와 연구 방법」, 『구결학회 · 국어사자료학회 공동 전국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구결학회 · 국어사자료학회, 55-69.
李丞宰 · 安孝珊(2002), 「角筆 符號口訣 資料에 대한 조사 연구 -誠庵本 『瑜伽師地論』 卷第5와 卷第8을 중심으로-」, 『口訣硏究』 제9집, 115-146.
이승재 · 심재기(1998), 「華嚴經 口訣의 表記法과 한글 轉寫」, 『口訣硏究』 제3집, 29-111.
이승희(1996), 「중세국어 감동법 연구」, 『국어연구』 139호.
이 용(1997ㄱ), 「'-乙'에 대하여」, 『口訣硏究』 제2집, 131-160.
이 용(1997ㄴ), 「연결어미 '-거든'의 문법사적 고찰」, 『口訣硏究』 제4집, 23-56.
이 용(1999), 「석독구결 선어말어미 '-ㅁ-'에 대하여」, 『형태론』 1권 1호, 115-132.
이 용(2000), 「연결어미의 형성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 용(2003), 「석독구결에 나타난 부정사의 기능에 대하여」, 『口訣硏究』 제11집, 249-274.
이은규(1996), 「석독 입겾 자료의 전산처리」, 『한국전통문화연구』 11, 효성카톨릭대, 333-373.
이장희(1995ㄱ), 「華嚴經 口訣字 'ㅁ'의 기능과 독음」, 『어문학』 56, 한국어문학회, 119-140.
이장희(1995ㄴ), 「고려시대 석독구결문의 '-ㄴ'에 대하여」, 『문학과 언어』 16, 103-120.
이장희(1996ㄱ), 「고려시대 석독구결문의 미정관형구성에 대하여」, 『어문논총』 30, 경북어문학회, 137-150.
이장희(1996ㄴ), 「고려시대 석독구결의 'ᄉᆞ'에 대하여」, 『문학과 언어』 17, 문학과 언어 연구회, 1-14.
이전경(2003), 「15세기 口訣의 表記法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李賢熙(1995ㄱ), 「'-아져'와 '-良結'」, 『國語史와 借字表記』, 태학사, 411-428.
李賢熙(1995ㄴ), 「'-ㅿ'와 '-沙'」, 『韓日語學論叢』, 국학자료원, 523-585.
장경준(2001ㄱ), 「석독구결에서 '故'자에 현토된 구결자의 문법적 기능에 대하여」,

『국어 문법의 탐구』 V, 태학사, 537-558.
장경준(2001ㄴ), 「釋讀口訣의 '故'자의 현토 경향에 대한 고찰(1)」, 『口訣硏究』 제7집, 113-134.
장경준(2002ㄱ), 「『瑜伽師地論』 角筆口訣에 대한 管見」, 2002년 2월 구결학회 월례발표회 발표 원고.
장경준(2002ㄴ), 「點吐釋讀口訣 자료에 기입된 口訣字와 대응 口訣點에 대하여 -『유가사지론』 권5, 8을 대상으로-」, 『口訣硏究』 제9집, 205-225.
장경준(2003), 「『유가사지론』 점토석독구결의 '지시선'에 대하여」, 『口訣硏究』 제11집, 189-209.
장윤희(1997), 「석독구결 자료의 명령문 고찰」, 『口訣硏究』 제2집, 97-130.
장윤희(1998ㄱ), 「석독구결 자료의 감탄법 종결어미」, 『口訣硏究』 제4집, 57-84.
장윤희(1998ㄴ), 「중세국어의 종결어미에 대한 통시적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장윤희(1999), 「舊譯仁王經 구결의 종결어미」, 『口訣硏究』 제5집, 165-188.
장윤희(2001), 「중세국어 '-암/엄 직ᄒᆞ-'의 문법사, 『형태론』3권1호, 1-22.
장윤희(2002ㄱ), 「한국어 의문법어미의 문법사」, 『조선어 연구 1』, 동경: 구로시오출판, 167-205.
장윤희(2002ㄴ), 『중세국어 종결어미 연구』, 국어학총서 41, 태학사.
鄭在永(1992), 「통합형어미 '-ㄴ든'과 '-ㄴ뎌'에 대한 고찰」, 『國語學』 22, 371-395.
鄭在永(1995ㄱ), 「前期中世國語의 疑問法」, 『國語學』 25집, 221-265.
鄭在永(1995ㄴ), 「'ㅅ'형 부사와 'ㄷ'형 부사」, 『國語史와 借字表記』, 태학사, 285-316.
鄭在永(1996ㄱ), 「順讀口訣 資料 梵網經菩薩戒에 대하여」, 『口訣硏究』 제1집, 127-234.
鄭在永(1996ㄴ), 「祇林寺本 楞嚴經 解題」, 『口訣資料集 二』, 韓國精神文化硏究院, 1-15.
鄭在永(1996ㄷ), 「終結語尾 '-立'에 대하여」, 『震檀學報』 제81호, 195-214.
鄭在永(1996ㄹ), 『依存名詞 'ᄃᆞ'의 文法化』, 國語學叢書 23, 太學社, 340.
鄭在永(1997ㄱ), 「고려시대 釋讀口訣」, 『문헌과해석』 통권1호, 162-174.
鄭在永(1997ㄴ), 「'-오-'의 변화」, 『國語史 硏究』, 태학사, 601-643.
鄭在永(1997ㄷ), 「借字表記 연구의 흐름과 방향」, 『새국어생활』 제7권 제4호·겨울, 국립국어연구원, 31-59.

鄭在永(1998ㄱ), 「高麗時代의 {-이} 부사와 부사형」, 『國語 語彙의 基盤과 歷史』, 태학사, 737-784.

鄭在永(1998ㄴ), 「合部金光明經(卷三) 釋讀口訣의 表記法과 한글 轉寫」, 『口訣研究』 제3집, 113-193.

鄭在永(1998ㄷ), 「大韓帝國時期 西洋人의 吏讀 研究」, 『韓國文化』 22, 51-84.

鄭在永(1998ㄹ), 「成三問의 童子習序와 童子習(口訣)에 대하여」, 『奎章閣』 제21집, 1-18.

鄭在永(1999ㄱ), 「세기전환기의 국어사 연구 동향과 국어사 연구에 대한 기대」, 제33회 전국어문학연구 발표대회 『세기전환기 국어국문학의 연구 동향과 기대』, 41-53면(유인물).

鄭在永(2000), 「고대국어 선어말어미 '-ᄂᆞ-'와 그 변화」, 『형태론』 2권1호, 박이정, 73-106.

鄭在永(2001ㄱ), 「誠庵古書博物館 所藏 晉本 『華嚴經』 卷二十에 대하여」, 『口訣研究』 제7집, 33-56.

鄭在永(2001ㄴ), 「國語 感歎文의 變化 -감탄법 종결어미의 변화를 중심으로-」, 『震檀學報』 제92호, 293-325.

鄭在永(2002), 「선어말어미 '-ㅏ-(-겨-)'에 대하여」, 『문법과 텍스트』, 서울대학교출판부, 335-361.

鄭在永(2003), 「口訣 研究史」, 『한국의 문자와 문자 연구』, 집문당, 101-125.

CHUNG JAE YOUNG(1999ㄴ), "Sŏkdokkugyŏl in the Koryŏ Period", *Seoul Journal of Korean Studies*, INSTITUTE OF KOREA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29-45.

鄭在永・南星祐(1998), 「舊譯仁王經 釋讀口訣의 表記法과 한글 轉寫」, 『口訣研究』 제3집, 195-251.

鄭在永・박진호(2002), 「구결 자료 전산화의 현황과 과제」, 『한국어와 정보화』, 태학사, 139-149.

鄭在永 外(2003), 『韓國 角筆 符號口訣 資料와 日本 訓點 資料 研究 -華嚴經 資料를 중심으로-』, 太學社.

趙殷柱(2001), 「고려시대 석독구결에 나타난 부정법 연구」, 『口訣研究』 제7집, 135-165.

趙殷柱((2002), 「前期 中世國語의 否定法 研究」,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崔範勳(1972), 「'口訣' 硏究」, 『국어국문학』 55-57호, 519-534.
崔範勳(1979), 「『孟子集註』의 혼성구결에 대하여」, 『청주사대논문집』, 청주사범대학, 1-20.
崔範勳(1982), 「書釋의 特殊口訣에 대하여」, 『論文集』 11, 경기대학교, 31-53.
최은규(1993), 「詳校正本慈悲道場懺法의 口訣에 대하여」, 『國語史資料와 國語學의 硏究』, 문학과 지성사, 660-689.
한상화(1994), 「기림사본 楞嚴經 口訣의 硏究」, 성심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홍윤표(1986) 「근대국어 省劃吐에 대한 연구」, 『조건상선생고희기념논문집』, 357-379.
황국정(2000), 「석독구결의 두 관형절에 대해 - '-ㅌㄷ/-ᄉㄷ'과 '-ㄱ/-ᄆ'이 실현된 구문의 통사적 차이를 중심으로 -」, 『口訣硏究』 제6집, 281-342.
황국정(2001), 석독구결의 '-ㅈ+ㅅ-' 구문에 대하여, 제25회 구결학회 공동연구회 발표론문집, 1-24
황선엽(1995), 「15세기 국어 '-으니'의 용법과 그 기원」,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황선엽(1996), 「一簑文庫本 大方廣圓覺略疏注經의 口訣에 대하여」, 『口訣硏究』 제1집, 95-126.
황선엽(2000ㄱ), 「고려시대 구결자의 문자론적 검토」, 『덕성어문학』 10, 101-117.
황선엽(2000ㄴ), 「석독구결 'ᄆ'의 해독에 대하여」, 『한국문학논총』 26, 255-280.
황선엽(2002), 「국어 연결어미의 통시적 연구 - 한글 창제 이전 차자표기 자료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황선엽(2003), 「구결자 'ᄼ'의 해독에 대하여」, 『口訣硏究』 제10집, 115-142.

菅野裕臣(1981), 「口訣硏究(一)」, 『東京外國語大學論集』 31, 31-60.
菅野裕臣(1986), 「韓國과 日本의 借字表記에 대하여, 『三國遺事의 綜合的 檢討』, 第4回 國際學術會議論文集, 한국정신문화연구원, 545-566.
菅野裕臣(1986), 「훈민정음과 다른 문자 체계의 비교」, 『國語史 資料와 國語學의 硏究』, 650-659.
藤本幸夫(1992), 「李朝訓讀攷 其一」, 『朝鮮學報』 143, 朝鮮學會, 109-218.

藤本幸夫(1993),「韓國의 訓讀에 대하여」,『國語史 資料와 國語學의 硏究』, 문학과 지성사, 642-649.
藤井茂利(1980),「ソウル大學藏『禮記集說大全』に付せられた略體漢字の「吐」について,『鹿兒島大學人文學科論集』15.
西田龍雄(1982),『アジアの未解讀文字』, 東京 大修書店.
西田龍雄(1997),「西夏文字の特性と西夏語の復元」,『아시아 諸民族의 文字』, 태학사, 149-172.
石塚晴通(1996),「アジア諸民族に於ける漢文の訓讀」,『제1回 아시아제민족의 문자에 대한 국제학술회의 발표 논문집』, 구결학회.
石塚晴通(1997),「Xundu-reading of Chinese texts among the peoples of Asia」,『아시아 諸民族의 文字』, 口訣學會編, 태학사, 231-238.
石塚晴通(2002),「漢字文化圈の加點史から見た高麗口訣と日本語初期訓點資料」,『口訣硏究』제8집, 111-128.
小林芳規(1974)는「返點の沿革」,『訓點語と訓點資料』第54輯, 86-111.
小林芳規(2001),「韓國의 角筆點과 日本의 古訓點의 關係」, 제2회 국제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구결학회, 15-52.
小林芳規(2002ㄱ),「韓國의 角筆點과 日本의 古訓點의 關係」,『口訣硏究』제8집, 21-76.
小林芳規(2002ㄴ),「韓國における角筆文獻の發見とその意義」,『朝鮮學報』182, 朝鮮學會, 1-82.
小林芳規/尹幸舜 譯(2003ㄱ),「新羅經典에 기입된 角筆文字와 符號 -京都 大谷大學藏『判比量論』에서의 發見-」,『口訣硏究』제10집, 5-30.
小林芳規/尹幸舜 譯(2003ㄴ),「八世紀の日本における角筆加點とその源流」, 日韓漢字漢文受容に關する國際學術會議, 21-56.
小林芳規/尹幸舜 譯(2003ㄷ),「大谷大學藏新出角筆文獻について」,『大谷學報』82卷 2號, 58-88.
小林芳規・西村浩子(2001),「韓國遺存の 角筆文獻 調査報告」,『訓點語と訓點資料』107, 東京: 訓點學會, 36-68.
中村完(1977),「『朝鮮版地藏經菩薩本願經』における吐の形態について」,『東北大學文學部硏究年報』27.

Courant, M.(1894), *BIBLIOGRAPHIE CORÉENNE* / 이희재(1994), 『韓國書誌 -修訂飜譯版』, 일조각.

Hulbert, H. B.(1896), The Korean Alphabet, *The Korean Repository, Vol 3,* No. 6, 233-237.

Hulbert, H. B.(1898), The Itu, *The Korean Repository, Vol 5,* No. 2.

Johns, G. H.(1905), Sul Ch'ong, Father of Korean Literature, *The Korean Review Vol 5* No. 7.

〔330-708 충남 천안시 병천면 가전리 307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양학부〕
E-mail: cjyoung@kut.ac.kr
접수일자: 2006. 6. 20.
게재결정: 2006. 7. 30.

Korean Kugyol

Chung, Jae-young

Classical Chinese writing has been read and understood on the Korean peninsula for a long time. Likewise, efforts to write Korean language using Chinese characters, as well as practices of writing in classical Chinese, the common textual medium of East Asia, date to ancient times. Techniques of using Chinese characters to write Korean are known as 'loan character transcription systems'(借字表記法, *Chaja pyogibeop*). Loan character transcription systems in Korea started with the transcribing of proper names. The next step involved the practice of interpreting or reading Chinese characters in the vernacular; finally, methods were developed for writing sentences in the vernacular using Chinese characters. These practices represent a universal phenomena, found in many nations and periods of history, whereby a foreign writing system is used to transcribe an indigenous language, or an indigenous writing system is used to transcribe a foreign language. In Korea, the initial stage of sentence-unit transcriptions involved simply transposing Chinese character texts from Chinese word order into Korean; this evolved to a stage where grammatical particles and endings, so-called *to* (吐) in Korean transcription tradition, were inserted into the text. Kugyol(口訣) developed as a method of facilitating

the translation or interpretation of Chinese texts in Korean as they are read. Kugyol appears to date from the time of the Shilla monk Uisang(義湘, 625-702).

Kugyol can be classified into three basic types: Symbol-kugyol (符號口訣, *Buho-kugyol*), Seokdok-kugyol(釋讀口訣, *translation kugyol*), and Eumdok-kugyol(音讀口訣, *transliteration kugyol*). Of course, the criteria for defining symbol-kugyol are not the same as those used for defining seokdok-kugyol and eumdok-kugyol. But, I classify kugyol into three types because symbol-kugyol had come into general use before seokdok-kugyol was in common use. Early symbol-kugyol materials have the same peculiarities as seokdok-kugyol, but after the 14th century, symbol-kugyol materials mostly have the same peculiarities as eumdok-kugyol. Symbol-kugyol materials can be subclassified depending upon the tool used to record the text. Thus Gakpil(角筆, *stylus*) symbol-kugyol uses a wooden stylus to make small perforations in the paper as reading marks, so-called *Jeomto*(點吐) in Korea, while *ink symbol kugyol*(墨書符號口訣) uses black, vermilion, or white ink to enter the reading marks. Symbol-kugyol visualizes the space demarcated by a Chinese character as a rectangle. The reading marks used in symbol-kugyol are made up of dots and lines or combinations of these basic marks. A single dot is the basic reading mark in symbol-kugyol. In this article I describe the origins of kugyol and its subtypes, and then explain the distinctive characteristics of symbol, seokdok, and eumdok kugyol. I also discuss the significance of kugyol characters from the standpoint of writing system theory. Kugyol

characters have been derived from traditional loan character transcription systems in Korea. They are syllabic characters, created from classical Chinese characters, by omitting certain strokes, or by using cursive forms. Kugyol characters are basically either 'eumgaja'(音假字) or 'hungaja'(訓假字). Japanese kana are the same kind of characters as kugyol characters. Actually, kugyol characters and kana have a lot of common features, and besides kana is closely connected with kugyol from the standpoint of the history of the development of written characters.

Key words: kugyol, symbol-kugyol(符號口訣, *Buho-kugyol*), seokdok-kugyol(釋讀口訣, *translation kugyol*), eumdok-kugyol(音讀口訣, *transliteration kugyol*), kugyol character, eumgaja(音假字), hungaja(訓假字), Jeomto(點吐), loan character transcription systems (借字表記法, *Chaja pyogibeop*), Kana